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33호 【루계 제24911호】 주체104(2015)년 5월 13일 (수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사 설

청년들은 혁명적이고 고상한 사회주의미풍의 선구자가 되자

온 나라 인민들과 청년들이 당중앙의 두리에 굳게 뭉쳐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한 총공격전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제2차 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가 진행된다.

대회에는 순결한 량심과 도덕의리로 위대한 수령님들을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며 어렵고 힘든 초소들에 자원진출하여 로력적위훈을 떨쳐가고 사회와 집단, 동지들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고있는 청년미풍선구자들과 청년동맹일군들이 참가하게 된다.

혁명과 건설의 년대들에 우리 청년들속에서 높이 발양되여온 미풍은 새로운 주체100년대에 더욱 활짝 꽃펴나고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고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 식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는데서 선구자가 되고있는 청년들의 사상정신적풍모와 아름다운 소행을 매우 귀중히 여기고있으며 높이 평가하고 있다.

지금 온 나라 인민들은 인생의 귀중한 청춘시절을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 사회와 집단을 위한 값높은 헌신으로 빛내여가는 청년미풍선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뜻깊은 대회를 진행하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기뻐하며 열렬히 축하하고있다.

우리 조국력사에서 두번째로 열리는 청년미풍선구자들의 대회는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품속에서 교양육성된 우리 청년들의 훌륭한 정신도덕적풍모를 보여주며 주체혁명의 새시대의 력사적진군에서 우리 청년들이 선군청년전위의 고상한 미덕과 미풍을 높이 발양해나가도록 힘있게 추동하는 중요한 계기로 될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사상과 의지로 숨쉬며 당의 두리에 성벽을 이루고 당을 따라 곧바로 힘차게 나아가는 계승자들의 대부대가 있기에 우리는 두려운것이 없고 못해낼 일이 없으며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것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의 정신도덕적풍모는 매우 훌륭하다.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 혁명선배들과 동지들에 대한 혁명적도덕의리심은 조선청년들의 특질이다. 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는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인 우리 나라에서만 열릴수 있는 자랑스러운 대회이다.

우리 당과 인민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 온 나라 청년들의 앙양된 열의속에 열리는 제2차 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는 우리 혁명과 청년운동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번 대회는 우리 청년들을 사회주의미풍의 창조자로 키워주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기 위한 력사적인 대회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장구한 혁명령도의 전기간 청년들을 교양육성하는 사업을 조국과 혁명, 민족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중대사로 내세우시고 여기에 커다란 힘을 기울여오시였다.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우리 새세대들을 정치사상적으로, 정신도덕적으로 견실한 주체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들로 키우기 위하여 바쳐오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로고와 심혈은 이루 다 헤아릴수 없다. 그 어떤 잡사상과 퇴폐적인 부르죠아생활풍조에도 물젖지 않고 오직 당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수백만의 훌륭한 청년대군을 키우신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이룩하신 거대한 업적의 하나이며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적완성을 위하여 물려주신 고귀한 유산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손길아래 형성되고 더욱 공고화된 조선청년들의 혁명적이며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는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세련된 령도밑에 새로운 높은 경지에 올라서고있다. 이번 대회는 청년들을 사상과 도덕의 강자의 대부대로 키우시고 그 위력을 높이 발양시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이끌어오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굳건히 옹호고수하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자랑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꿋꿋이 이어나가려는 조선청년들의 혁명적신념과 의지를 남김없이 과시하는 충정의 대회로 될것이다.

제2차 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양양한 전도를 온 세계에 뚜렷이 보여주는 긍지높은 대회이다.

오늘 자본주의는 극도의 개인리기주의를 조장하고 청년들을 정신도덕적불구자로 전락시키는 말세기적인 사회로 만사람의 저주와 규탄을 받고있다. 인간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온 사회가 령도자를 어버이로 모신 화목한 대가정을 이룬 주체의 사회주의제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건전한 사상문화생활, 정신도덕생활을 원만히 보장하여주고있다. 오늘 우리 청년들속에서 고상한 미풍이 높이 발양되고있는것은 주체사상의 요구를 구현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에 대한 뚜렷한 증시로 된다.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는 미래의 주인공인 청년들에게 달려있다. 자기 수령만을 알고 자기 조국을 제일로 귀중히 여기며 인간을 뜨겁게 사랑하는 청년들, 키워준 그 품에 보답하기 위하여 모든 지혜와 열정, 목숨까지도 서슴없이 바칠줄 아는 청년들의 기상과 위용을 높이 떨칠것이다.

이번 대회는 온 사회에 혁명적이며 고상한 도덕기풍, 생활기풍이 차넘치게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적대세력들의 발악적인 반공화국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년대와 년대를 뛰여넘어 최후승리의 령마루에로 폭풍쳐 내달리고있다. 격동하는 오늘의 현실은 청년대오의 사상의 힘, 도덕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의 모든 남녀청년들이 숭고한 정신도덕적품성을 지니고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서 선봉적, 핵심적역할을 다해나갈 때 선군조선의 정치군사적위력이 비상히 높아지고 경제강국, 문명국건설에서 대비약적혁신이 이룩되게 될것이며 온 사회가 더욱 활기에 넘치고 최후승리의 그날이 앞당겨지게 될것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고결한 충정과 보석같은 애국의 마음을 안고 청춘시절을 빛내여나가는 청년전위들의 미덕과 미풍을 널리 일반화하여 모든 청년들을 혁명적인생관을 지닌 시대의 선구자로 준비시키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토의하게 된다. 우리는 대회를 계기로 미풍선구자들의 모범을 따라 배우기 위한 투쟁이 청년대중자신의 사업으로 더욱 힘있게 벌어지게 하고 우리 청년들의 정신도덕적풍모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우리 조국이 약동하는 젊음으로 더 높이 비약하게 하여야 한다. 전체 청년들은 청년강국이라는 새로운 시대어와 함께 청년들의 영웅적위훈을 값높이 평가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선군조선의 대번영기를 열어나가는 오늘의 총진군에서 누구나 사회주의미풍을 발양해나감으로써 당의 청년전위로서의 대부대가 있기에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은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강성번영할것이다.

수령의 사상과 위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은 사회주의미풍의 최고표현이다.

청년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우러러모시며 하늘땅이 열백번 바뀐대도 수령님들께 열어주신 길을 따라 억세게 나아가야 한다. 《가리라 백두산으로》,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를 비롯한 시대의 진군가를 힘차게 부르며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력사의 생눈길을 맨 앞장에서 뚫고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강령적지침으로 틀어쥐고 한치의 드팀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해나가야 한다.

모든 청년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조국도 있고 혁명의 최후승리도 있다는 억척불변의 신념을 간직하고 원수님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한뜻으로 받들어나가야 한다. 당과 수령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싸운 혁명선렬들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 그 어떤 천지풍파속에서도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믿고 따르는 사상과 신념의 강자가 되고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는 500만의 총폭탄용사가 되여야 한다. 당의 사상과 유일적령도체계에 어긋나는 자그마한 요소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리고 당을 따라 곧바로 힘차게 나아가야 한다.

청년들은 오늘의 준엄한 사회주의수호전에서 선군청년전위의 정신도덕적풍모를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청년들은 조국보위를 공민의 최고영예로, 최대의 애국으로 여기고 조국보위초소에서 청춘시절을 값있게 빛내이며 전쟁에 대처할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철저히 갖추어나가야 한다. 인민군대가 강해야 인민이 발편잠을 자고 조국이 번영한다는것을 명심하고 원군기풍을 더욱 높이 발휘하며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을 존대하고 도와주는 미풍을 활짝 꽃피워나가야 한다. 청년들을 정신적불구자로 만들고 세상에 둘도 없는 우리의 행복의 보금자리에 쉬를 쓸려는 썩어빠진 부르죠아사상문화와 비사회주의적요소들을 말끔히 쓸어버리는데서 맹수가 되여야 한다.

청년들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대비약적혁신을 일으키는 거세찬 불길이 되여야 한다.

당의 부름이라면 산으로, 바다로, 새로운 개발지로 앞을 다투어 달려나간 아버지, 어머니세대들처럼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과 북부철길개건보수공사장을 비롯한 거창한 대건설전투장들과 경제강국건설의 어렵고 힘든 전선에 용약 달려나가 청춘의 기념비를 높이 세우며 영웅적위훈을 끊임없이 창조하여야 한다. 당이 맡겨준 초소를 조국수호의 제1선참호로 여기고 높은 사업실적으로 굳건히 지키며 청년과학기술행군을 힘있게 벌려 증산경쟁과 최첨단돌파전의 선구자가 되여야 한다.

청년들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밑에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 우리 사회의 일심단결의 대화원을 더 풍만하게 가꾸어나가야 한다.

청년들속에서 사회주의미풍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하여서는 청년동맹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청년동맹사업에서 형식주의, 도식주의를 결정적으로 뿌리빼고 동맹원들에 대한 사상교양과 조직생활지도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혁명적사상공세와 조직생활, 혁명실천을 통한 단련을 강화하는것은 동맹원들을 총알처럼 땅땅 여문 알찬 청년전위, 안팎으로 멋있는 참된 인간으로 키우는 기본방도이다. 각급 청년동맹조직들과 일군들은 동맹원들속에서 결함이 나타나면 자기 일처럼 가슴아파하고 한번 교양하여 안되면 열번, 백번 교양하여서라도 자기 단위의 청년들모두를 당과 조국의 끝말한 기둥감으로 키워야 한다. 우리 당의 긍정감화교양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한사람이 발휘한 미풍이 집단의 기풍으로 되고 한개 집단이 발휘한 미풍이 군과 도, 나아가서 온 나라 청년들의 아름다운 투쟁정신, 생활기풍으로 꽃펴나도록 하여야 한다.

청년동맹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청년중시는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이며 전략적로선이다. 당조직들은 청년동맹사업을 당사업의 한부분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각별한 관심을 돌려 청년문제해결의 시대적본보기를 창조한 우리 당의 업적을 끝없이 빛내여나가야 한다. 청년동맹조직들의 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알아보고 청년동맹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책임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청년들을 선군시대의 훌륭한 젊은이로 키우는 사업을 전국가적, 전사회적인 사업으로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국가기관들과 사회기관들에서는 설사 다른 사업은 좀 지장을 받는 한이 있어도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정신도덕적으로 훌륭히 키우는 사회적환경과 교육교양조건을 최상의 수준에서 최우선적으로 마련해주는 기풍을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 가정들에서도 자녀들의 교육교양에서 정신도덕적성장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한다.

선군조선의 청년들이여, 우리모두의 운명이고 미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온 세계가 우러러보게 될 백두산대국의 휘황한 래일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타이왕국 부수상 겸 외무상이 선물을 보내여왔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타나싹 빠띠마쁘라꼰 타이왕국 부수상 겸 외무상이 선물을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보내여온 선물을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타이외무성대표단 단장인 돈 쁘라맛위나이 부상이 12일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탁월한 전략전술과 군사전법의 승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업적토론회가 에티오피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산하 10개 지부에서 4일부터 6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였다.

토론회들에서는 지부책임자들의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조선이 1950년대초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고 하는 군사력과 경제력, 오랜 침략력사를 가진 미국과 그 추종국가군대들과의 치렬한 대결에서 이룩한 기적적인 승리는 **김일성**주석의 탁월한 전략전술과 독창적인 군사전법의 빛나는 승리였다고 격찬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미국이 남조선군을 내세워 전쟁을 일으키자 조선인민군이 즉시적이고도 결정적인 반공격에로 넘어갈데 대한 명령을 하달하시였다고 하면서 그들은 우리 인민군대가 전쟁개시 3일만에 서울을 해방한데 이어 불과 한달남짓한 기간에 남조선지역의 90%이상, 인구의 92%이상을 해방하는 기적을 창조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적들의 기도를 정확히 간파하시고 그에 따르는 전략전술을 능숙하게 적용하시였으며 산악전, 갱도전, 비행기사냥군조운동을 비롯한 령활한 군사전법들을 제시하시여 빛나는 승리를 안아오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6일부터 8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일본의 교도통신, 세네갈신문 《러 뽀뽈래르》, 도이췰란드반제연단 인터네트홈페지 《현지지도소식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룡성기계련합기업소 2월11일공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민주꽁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는 새로 건설한 국가우주개발국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전하였다.

네팔신문 《아르판》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5차 훈련일군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신 소식을 게재하였다.

도이췰란드, 민주꽁고의 인터네트홈페지와 네팔신문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을 모시였다.

*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3일부터 7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따쓰통신은 **김정은**령도자께서 룡성기계련합기업소 2월11일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절실히 요구하는 현대적인 기계제품들의 성능을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하루빨리 본격적인 계렬생산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룡성기계련합기업소 2월11일공장은 낡은 설비들을 현대적으로 개작하고 효과적으로 리용하는데서 전국의 본보기, 모범이라고 하시면서 다른 단위들에서도 이 공장의 경험을 적극 따라배워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이 나라의 데웨-로쓰통신, 스뿌뜨니크방송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인디아의 신문들인 《타임스 오브 인디아》, 《에코노미크 타임스》, 《에이션 에이쥐》와 지 뉴스 TV방송, 벌가리아신문 《크로스》, 세네갈신문 《러 뽀뽈래르》,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 도이췰란드반제연단 인터네트홈페지 《현지지도소식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건설한 국가우주개발국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전하였다.

벌가리아신문과 도이췰란드의 인터네트홈페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을 모시였다.

【조선중앙통신】

영광의 땅을 빛내일 열의안고 모내기전투에 떨쳐나섰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농업부문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농사를 잘하여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는것입니다.》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과 평원군 원화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이 깃들어있는 영광의 땅에서 일하는 긍지안고 모내기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에서

영광의 땅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에서 모내기가 시작되였다.

지금으로부터 44년전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소 모를 내신 잊지 못할 5월 12일을 맞으며 뜻깊은 올해의 모내기를 시작한 청산리사람들의 가슴은 세차게 끓고있다. 청산리를 찾고찾아주시며 농사에서 전국의 앞장에 서도록 고무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모두가 모내기전투에 떨쳐나섰다.

농장일군들은 수령의 유훈관철전에서 기수가 될 각오를 가지고 모내기를 최적기에 질적으로 끝내기 위한 준비사업에 힘을 넣었다. 모내는기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며 과학농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진행하였다.

농장원들은 청산벌에 새겨진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일 뜨거운 마음을 안고 모내기전투성과를 담보할 만단의 준비를 갖추어나갔다.

기계화작업반원들은 모내기를 질적으로 하는데 알곡증수의 큰 예비가 있다고 하면서 모내는기계수리정비를 빈틈없이 하고 빈포기가 생기는것을 막는 장치를 받아들이였다.

12일 농장에서는 만단의 준비밑에 모내기를 시작하였다.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알곡증산의 자랑찬 선물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설 열의드높이 모내기 첫시작부터 기세를 올리고있다. 모내는기계의 발동소리 높이 울리며 첫모를 내는 긍지와 자랑이 농장원들의 얼굴마다에 한껏 넘쳐나고있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포전에 선전선동력량을 집중배치하고 포전방송과 직관선전을 배합하면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려 온 벌이 들끓게 하고있다.

취득벌의 제3작업반 농장원들이 불리한 봄날씨를 이겨내며 모를 튼튼히 키운 자랑안고 모내기전투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관리위원장 윤춘화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펼쳐주신 황금벌의 새 력사를 대대손손 빛내여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청산리가 전국의 맨 앞장에 서야 한다고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며 이신작칙하고있다.

모내는기계운전공들과 모공급수들은 한알의 낟알이라도 더 많이 생산하는 사람이 애국자라는 자각을 안고 떨쳐나 기계화의 동음을 울리며 취득벌에 푸른 주단을 펼쳐나가고있다. 이동수리조원들이 포전을 돌면서 농기계들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필요한 대책을 세우고있다. 농장원들모두가 과학농법의 주인이 되여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할 열의에 넘쳐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모를 내고있다.

시당위원회, 시농촌경리위원회 책임일군들을 비롯한 시와 구역의 일군들도 이날 청산협동농장의 모내기전투장에 달려나와 정성껏 모를 냈다.

백두산3대장군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영광의 땅에서 살며 일하는 크나큰 긍지를 안고 뜻깊은 올해의 첫모를 낸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모내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끝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글 김강철
사진 본사기자 강정민

평원군 원화협동농장에서

평원군 원화협동농장에서 모내기가 시작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그 관철에 떨쳐나선 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이 깃들어있는 영광의 포전에서 모내기를 진행하였다.

지금으로부터 63년전 5월 10일, 준엄한 전화의 포연을 헤치시고 원화리를 찾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몸소 농민들과 함께 포전에서 풍년씨앗을 뿌리시였다.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농장에서는 물절약형농법을 비롯한 과학농법을 적극 받아들일데 대한 당정책을 받들고 많은 우물을 파고 졸짱을 박았다. 그리고 흙깔이와 벼모키우기, 논갈이, 써레치기 등 공정별에 따르는 영농지도를 착실히 해나갔다.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농장에 필요한 영농물자들과 자재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었다.

농장에서는 올해 많은 면적의 논에 영양단지모를 내야 하는 조건에 맞게 농장원들속에서 과학기술학습을 실속있게 진행하여 그들이 기술적요구를 잘 알고 모내기를 책임적으로 해나가도록 하였다.

영광의 포전에 첫모를 내는 농장원들의 가슴마다에는 뜻깊은 올해 자기들앞에 맡겨진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고야말 불같은 맹세가 어려있었다.

포전에 달려나온 일군들도 손에손에 모춤을 쥐고 원화땅에 어려있는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기며 한포기한포기 정성다해 모를 냈다.

평안남도와 군의 책임일군들이 원화협동농장을 찾아 모를 내는 농장원들의 일손을 성심성의를 다해 도와주었다.

논판에서는 모내는기계들의 고르로운 발동소리와 함께 경제선동의 북소리가 높이 울려퍼졌다.

농산제1작업반만이 아닌 제2, 3, 4작업반을 비롯한 협동농장의 모든 작업반, 분조들에서도 모내기는 한해농사를 좌우하는 중요한 영농공정이라는것을 명심하고 모내기에 들어갔다.

뜻깊은 올해를 알곡증산성과로 빛내이려는 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의 불같은 마음에 의하여 포전은 시간이 갈수록 푸르러지고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리혁철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를 일떠세우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

인민의 꿈과 리상을 꽃피워주시며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이 꽃펴나는 사회주의 내 나라,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날에날마다 새로운 기적을 창조하며 강성국가를 향하여 줄기차게 전진하는 우리 조국의 빛나는 현실을 볼 때마다 우리 인민은 자본주의가 흉내낼수도 가질수도 없는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을 페부로 느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여있고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입니다.》

자본주의가 흉내낼수도 가질수도 없는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

이에 대하여 생각할 때면 주체사상을 구현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일떠세우시기 위하여 한평생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자욱이 눈에 밟혀온다.

세상에 인민대중보다 더 힘있고 지혜로운 존재는 없다.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여야 한다.

이런 좌우명을 지니시고 우리 수령님께서 헤치신 시련과 난관들은 그 얼마였던가.

항일의 혈전만리와 전화의 불바다만리, 두 단계의 사회혁명과 사회주의 건설…

1930년대초 두만강연안에 세워진 유격근거지들에 참다운 인민의 정권을 세워주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이 숭엄히 안겨온다.

유격구에 《쏘베트열풍》이 휩쓸던 시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에 맞는 정권을 세우시기 위하여 원칙적인 투쟁을 벌리시였다. 정권형태의 기준을 인민의 리익을 얼마나 옹호고수하며 철저히 대변하는가 하는데서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비범한 예지와 희생적인 투쟁에 의하여 인민혁명정부가 세상에 태여나게 되였고 해방후에는 그것을 계승하여 참다운 인민의 정권이 창건되게 되였다.

해방후 토지개혁을 비롯한 민주주의혁명과업도 우리 인민의 의사에 맞게 수행하도록 하시고 낡은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거창한 사업도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진행하도록 하시여 사회주의제도를 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

우리 당과 국가가 일관하게 실시하고있는 자주적인 정치와 주체성과 민족성이 철저히 구현되는 우리 사회의 모습에도,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를 대표하는 인민정권의 활동과 끊임없이 이어지는 후대사랑의 감동깊은 화폭에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를 건설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이 뜨겁게 아로새겨져있다.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를 세우시기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쳐오신 심혈과 로고는 그 무엇으로써도 다 헤아릴수 없다.

우리 인민의 추억속에 깊이 새겨져있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

주체59(1970)년 10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북창화력발전소(당시) 관계부문 일군협의회를 소집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오늘 동무들과 같이 이야기하자는것은 북창화력발전소의 주택건설문제이라고 하시면서 군대에 갔던 동무들이 제대되여 돌아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는데 집 한칸 주지 않는다고 하시였다.

일군들을 둘러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무들은 발전소건설만 하고 주택을 짓지 않는것이 큰 결함이라고 하시며 발전소를 건설하면서 주택을 안지으면 어떻게 하는가고 안타깝게 이르시였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동무들은 다 당원들이고 간부들인데 공장을 건설하면 응당 주택도 같이 건설하여야 하지 않겠는가고 하시며 이미 착수한것을 포함하여 년말까지 1 000세대의 살림집을 지어줄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그해 년말에 위대한 수령님의 은정으로 전기온돌을 놓고 세면장에 위생실까지 달려있는 새 집을 받아안은 한 제대군인청년은 《저를 낳아 길러준 아버지, 어머니도 아들의 잔치는 차려주었지만 집은 주지 못하였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해방전 성례를 치른 후 20년이 지나 맏아들을 장가보내게 되였을 때에야 겨우 오막살이초가집을 한칸 꾸렸다고 하면서 온밤 잠들지 못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은 참으로 이 땅의 모든 아들딸들의 소원을 다 풀어주시는 친어버이이십니다.》라고 솟구치는 격정을 터치였다.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하시고 한평생 자신의 숭고한 모범으로 그 진정한 의미를 온 나라에 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이시다.

조국의 운명이 판가리되던 준엄한 전쟁시기에 전반적무상치료제를 실시하도록 하시고 로동당시대의 전성기가 펼쳐지던 1970년대에는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앨데 대한 법령을 선포하도록 하시였으며 전반적의무교육제도를 끊임없이 발전시키도록 하신 어버이수령님,

우리 당이 어머니당으로, 우리 군대가 인민의 군대로 불리우고 이 땅에 일떠선 수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인민》이라는 이름과 더불어 빛나고있는 현실에도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시려는 우리 수령님의 령도의 손길이 어리여있다.

위대한 그 손길은 무산과 검덕, 청산리와 원화리, 과일군과 북청군을 비롯한 온 나라의 곳곳에 력력히 어려있으며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실시하는 수많은 인민적시책들에도 뜨겁게 수놓아져있다.

참으로 우리 인민들이 누리는 행복하고 문명한 사회주의생활속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이민위천의 리념과 숭고한 인민사랑이 공기처럼 흐르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에 의하여 온 세상에 더욱 빛나게 되였다.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책동이 극도에 달하였던 지난 세기 90년대에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를 비롯한 수많은 로작들을 발표하시고 험난한 선군장정의 길을 이어오시며 력사에 류례없는 사회주의수호전을 련전련승에로 이끄신분이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우리 군대와 인민을 주체의 사회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시고 어려운 고난의 시기에도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을 높이 발휘하도록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우리 조국은 세계적인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위용떨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굳건히 고수하시고 더욱 빛내여오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그 위력을 남김없이 떨치고있다.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력사를 수놓아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시고 인민의 존엄과 행복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사색과 헌신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의하여 이 땅에서는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이 현실로 꽃펴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인민사랑의 한평생이 어려있는 우리 식 사회주의를 끝없이 빛내여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령도가 있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이 땅우에 주체의 강성국가를 반드시 일떠세워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빛내여갈것이다.

본사기자 정선철

봄날에 포치하신 겨울교복생산

주체57(1968)년 7월 12일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겨울교복견본을 보아주시기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복견본을 보아주신것은 이때가 처음이 아니였다. 그이께서는 나라가 전후의 어려운 시련을 이겨내던 그 시기에 벌써 학생들에게 겨울옷과 여름옷을 만들어 공급하도록 하여주시고 매번 견본을 보아주시였다.

하여 한 일군이 이번에는 다른 사업도 많으신데 집무실에서 옷견본만 보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지만 그이께서는 학생들에게 옷을 입혀놓고 보시겠다고 하시며 바쁘신 시간을 내시였던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대원수님들처럼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불러주시고 후대들에 대한 사랑을 당과 국가의 제일중대사로 내세우시며 한평생 학생소년들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그런 위대한 어버이는 세상에 없습니다.》

학생들이 올리는 인사를 반갑게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앞에 다가서시여 옷의 형태와 색갈도 헤아려보시고 품과 치수도 가늠해보시였다.

갖가지 색갈의 좋은 천으로 멋지게 만든 겨울옷에 솜옷까지 입은 학생들을 보시며 아이들에게 옷만 해입힐것이 아니라 긴 양말과 목달린 겨울신발을 꼭같이 해결해주어야 하겠다고 하시고 학생옷은 물론 유치원어린이들의 옷도 만들어야 한다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는 위대한 수령님,

무더위속에서 친히 견본을 보아주러 나오시고 겨울교복생산과 관련한 교시를 주시며 만족해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을 우러르며 일군들은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사실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으로 나라의 정세가 긴장된 때였으므로 누구도 교복생산에 대하여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것이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해 4월 초순에 열린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탁아소로부터 중학교에 다니는 모든 아이들에게 겨울옷과 외투, 신발, 모자, 목도리, 양말을 만들어 해입히자고 하시며 동무들이 따져보고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가 상당한 액수를 보장해주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가르쳐주시였다.

미제가 원산을 폭격하겠다고 떠벌이며 전쟁도화선에 불을 지르려고 날뛰는 때에 그것도 따뜻한 봄날에 겨울철을 생각하시며 아이들의 겨울교복생산을 위해 은정넘친 조치를 취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며 눈시울을 뜨겁게 적신 일군들이였다.

그 이듬해 1월 중순 평양시를 돌아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통강기슭에서 차를 멈추시고 만면에 웃음을 가득 담으시고 한곳을 바라보시였다.

새로 탄 교복에 솜옷차림을 한 나어린 학생들이 추위도 느끼지 못하는듯 한창 눈싸움을 하고있었다. 눈싸움을 하며 웃고 떠드는 아이들을 즐겁게 바라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옷이 날개라고 우리 아이들이 모두 《선남》, 《선녀》가 되였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거리에 온통 꽃이 핀것 같습니다라고 하시며 환하게 웃으시였다. 그러시고는 나는 이런 기쁨을 느낄 때가 제일 좋다고 하시며 여름옷을 겨울옷보다 더 멋지게 해입히자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철따라 새 교복을 차려입고 세상에 부럼없이 자라나도록 하시고 그들의 행복넘친 모습을 보시며 그리도 만족해하시는 위대한 수령님,

봄철에는 온 나라 아이들의 겨울옷생산을 포치하시고 겨울철에는 여름옷을 해입힐것을 생각하시는 우리 수령님과 같으신 학생들의 자애로운 친어버이가 세상에 있었던가.

따스한 봄날에 시작된 겨울교복생산, 그것은 어린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우시고 후대들의 행복에서 최상의 기쁨을 찾으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만이 펼치실수 있는 전설같은 이야기였다.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위하여서는 하늘의 별도 따오시고 돌우에도 꽃을 피우시는 어버이수령님의 그 사랑은 위대한 장군님에 의하여 빛나게 이어졌으며 오늘은 경애하는 원수님에 의하여 더 활짝 꽃펴나고있다.

령도자는 인민들을 정과 열을 다하여 보살펴주고 인민은 령도자의 사랑을 한시도 잊지 않고 충정의 일편단심을 바치는 여기에 우리 식 사회주의의 참모습이 있고 자본주의가 흉내낼수도 가질수도 없는 우월성과 위력이 있는것이 아닌가.

본사기자

문수물놀이장에 비낀 사랑의 세계

곱고고운 비단필들이 너울너울 춤을 추는것인가, 그 옛날 선녀들이 타고내렸다는 전설속의 칠색무지개들이 비낀것인가.

멀리서 보면 온갖 꽃들로 단장된 하나의 큰 꽃바구니같고 가까이에서 보면 절로 감탄이 터져나오게 하는 문수물놀이장의 황홀경을 두고 이곳을 찾는 사람들모두가 아름다운 물의 궁전이라 부른다. 봄빛처럼, 해빛처럼 따스하게 스며드는 어머니당의 인민사랑의 세계를 숭엄한 격정속에 삼가 더듬어본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 만난시련을 이겨내며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문수물놀이장건설장을 또다시 찾으신 주체102(2013)년 9월 어느날에 있은 일이다.

건설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문득 실내물놀이장의 한곳에서 걸음을 멈추시고 여기에 해가림을 설치해야겠다고 이르시였다.

순간 일군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잠시후 물놀이장의 천정을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채광이 잘되여 여름에는 몹시 더울수 있다고 누구에게라없이 이야기하시였다.

해빛을 막을수 있는 차일풍을 설치해주어 인민들이 물놀이를 하다가 나와서 그밑에서 휴식도 하게 해야 한다고 일군들도 미처 생각지 못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의 말씀은 일군들의 가슴마다에 크나큰 격정의 파도를 몰아왔다. 실내물놀이장에 해가림대가 있어야 한다고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것이다.

하지만 인민들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물놀이장을 리용하게 될 인민들이 자그마한 불편이라도 느낄세라 깊이 관심하시며 누구도 생각지 못한 자그마한 세부에 대하여서도 대번에 헤아리시고 일깨워주신것이다.

찌물쿠는 삼복의 무더위속에서도, 인민들이 단잠에 든 깊은 밤에도 건설장을 찾고찾으신분,

지도하여주신 형성안만 하여도 113건이나 된다는 일화도, 동트는 새벽을 이 건설장에서 맞으시며 우리 원수님께서 끝없는 사랑을 부어주시였다는 사연도 인민은 여기 문수물놀이장에서 알게 되지 않았던가.

진정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세계가 뜨겁게 어려오는 아름다운 물의 궁전, 문수물놀이장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이민위천의 숭고한 뜻을 이 땅에 꽃피우시며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를 더 높이 울려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창공에는 우리 국기 무궁토록 나붓기고 이 땅에선 모든 꿈 이루어지리라고.

우리 인민의 생활속에 친근하게 자리잡은 문수물놀이장에 사회주의만세소리, 로동당만세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지리라고.

본사기자

새 교과서에 깃든 사연

우리 당의 후대사랑이 이 땅에 펼쳐놓은 류다른 봄풍경은 날이 갈수록 누구나의 마음속에 세찬 격정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새 학년도를 앞두고 전국의 소학교신입생들에게 일식으로 안겨진 새 교복과 책가방, 학용품들, 태양절을 앞두고 대학, 전문학교학생들이 받아안은 새 교복들…

조국의 미래를 품어안는 위대한 어버이사랑이 가슴뭉클어려올수록 해방후 백두산녀장군께서 후대들을 위해 기울이신 다심한 은정이 뜨겁게 되새겨진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어머님의 한생은 길지 않았지만 어머님은 조국과 인민, 시대와 력사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시고 혁명가로서, 인간으로서 한생을 어떻게 살며 투쟁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신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주체36(1947)년 7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어느 한 인쇄소를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새 학년도가 하루하루 다가오는데 교과서인쇄가 잘 진척되지 않는데 대하여 심려하고계신다고 하시며 김정숙동지께서는 일군들에게 교과서인쇄의 중요성을 깨우쳐주시였다.

그때 인쇄소에서는 인쇄계약순차에 따라 인쇄를 하면서 교과서인쇄를 늦잡고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장군님께서 교과서문제를 두고 심려하고계시는데 우리 일군들이 더욱 분발하여 장군님의 심려를 덜어드려야 한다고 이야기하시며 말씀을 이으시였다.

《개학을 앞둔 지금 다른 인쇄물보다 교과서를 먼저 인쇄해야 합니다. 장군님의 은덕으로 자식들을 학교에 보내여 공부시키려던 우리 인민의 평생소원이 풀려 모든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마음껏 공부하게 되였는데 새 학년도를 맞이하는 그들에게 교과서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산에서 왜놈들과 싸울 때 인쇄소가 없어 밤을 새우면서 등사기로 교과서를 만들어 아동단학교에 보내주던 이야기도 들려주시며 김정숙동지께서는 일군들이 마음먹고 달라붙으면 교과서를 새 학년도전으로 얼마든지 찍을수 있을것이라고 신심을 북돋아주시였다.

그날 김정숙동지께서는 일군들에게 인쇄소에서는 새 학년도전으로 교과서인쇄를 전부 끝내여 우리 혁명의 미래인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꼭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교과서를 보장한 다음에는 그림책과 잡지를 비롯한 여러가지 과외교양도서들도 찍어서 학생들에게 보내주어야 한다고 당부하시였다.

후대교육사업을 두고 그토록 마음쓰시는 백두산녀장군의 숭고한 사랑의 세계에 일군들의 생각은 깊어졌다.

그후 인쇄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인쇄순차를 다시 정하고 긴장한 전투를 벌려 새 학년도전으로 교과서인쇄를 끝내게 되였다.

미래에 대한 불보다 뜨거운 사랑을 지니시고 후대들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백두산녀장군 김정숙동지의 고귀한 뜻은 오늘 12년제꽃대문을 열어주시고 후대교육사업을 당과 국가의 제일중대사로 변함없이 내세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손길아래 더 활짝 꽃펴나고있다.

본사기자 리금분

자본주의가 흉내낼수도 가질수도 없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2)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실생활을 통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야말로 자기들에게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는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라는것을 확신하고있습니다.》

사회제도는 사람을 위한것이며 사람에게 복무하여야 한다. 그런것만큼 해당 사회제도의 본질적우월성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어느 계급, 어느 사회적집단의 어떤 요구와 리익을 구현하고있는가 하는데서 찾아야 한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인민대중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한 사회인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의 생명으로, 생활로 되고있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가 있어 우리 인민의 오늘의 존엄과 행복뿐아니라 희망찬 미래까지도 담보되게 되는것이다.

세상에 둘도 없는 아이들의 행복의 요람

오늘 세계적으로 어린이들이 빈궁과 각종 질병, 범죄의 희생물로 되여 국제사회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미국에서 2012년 한해동안에 유괴된 어린이수는 670여명에 달하였고 2013년에 어린이빈궁자수는 2 420만명에 이르렀으며 해마다 10만명의 어린이들이 인신매매의 희생물로 되고있다. 국가와 사회의 보호속에, 부모의 보살핌속에 한창 재롱을 부리고 희망을 꽃피워야 할 아이들이 시시각각으로 생명을 위협받고 각종 범죄행위의 희생물로 되고있으며 지어는 성폭행까지 당하고있는것이 오늘날 자본주의사회의 비참한 현실이다.

예로부터 아이들에 대한 사랑은 가장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사랑이며 지어낼수도 강요할수도 없는 순결하고 아름다운 감정이라고 했다. 이런 뜨겁고 열렬한 사랑이 최상의 높이에서 꽃펴나고있는 사회가 바로 우리 식 사회주의이다.

태여나면 애기궁전, 자라나면 소년궁전, 이 짧은 노래의 한구절속에 우리 사회의 참모습이 그대로 깃들어있다. 우리 당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이 날이 갈수록 더욱 활짝 꽃펴나고있는 속에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 평양육아원, 애육원이 단숨에 일떠서 세인을 경탄시키고있다. 동화세계를 방불케 하는 보육실과 교양실, 운동실, 지능놀이실, 갖가지 유희오락시설과 기재들이 최상의 수준에서 갖추어진 육아원과 애육원에서 원아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무럭무럭 자라고있다. 그 누가 그늘 한점 없이 밝고 명랑한 이들의 모습을 보고 부모없는 아이들이라고 하겠는가. 정녕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아이들도 많지만 우리 아이들처럼 위대한 태양의 축복속에 나라의 왕으로 떠받들리우며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마음껏 꽃피워가는 행복동이들은 그 어디에도 없다.

제국주의자들의 제재와 봉쇄책동이 아무리 악랄해도 위대한 당의 품속에 안긴 우리 아이들의 명랑한 웃음소리는 절대로 빼앗을수 없다. 《세상에 부럼없어라》, 이것은 우리 아이들, 우리 인민만이 터칠수 있는 꾸밈도 가식도 없는 심장의 찬가이다.

문명의 향유자는 누구인가

릉라곱등어관을 찾았던 한 외국인은 이렇게 말하였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곱등어공연을 돈많은 부자들이나 볼수 있다. 조선에서는 근로하는 평범한 인민들이 이런 문명의 향유자로 되고있으니 정말 놀랍다. 세상에 이런 나라는 오직 조선밖에 없다. … 》

어찌 곱등어관뿐이겠는가. 릉라인민유원지와 류경원,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마식령스키장을 비롯하여 곳곳에 건설된 문화정서생활기지들에서 울려나오는 기쁨의 웃음소리, 로동당만세소리는 사회주의문명을 마음껏 향유하는 우리 인민들의 행복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문명한 생활을 바라고있다. 하다면 《현대문명》을 자랑하는 자본주의나라들을 보기로 하자.

자본주의사회에서 《문명》은 극소수의 특권계급, 부유계층을 위한것으로 되고있다. 곳곳에서 화려한 네온등이 번쩍거리고 상점과 식당, 극장들이 즐비하게 늘어서있어도 돈없고 권세없는 근로대중을 반겨맞아주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집이 없어 밖에서 새우잠을 잘 때 유흥장들과 호화별장들에서는 한줌도 못되는 부유한자들이 돈을 탕진할데가 없어 부패타락하고 변태적인 생활을 추구하고있다. 도대체 문명의 창조자는 누구이며 향유자는 과연 누구인가.

창조와 향유는 사회적인간의 마땅한 권리이다. 창조와 향유의 분리, 바로 이것으로 하여 자본주의사회에서 계급적모순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제도자체가 밑뿌리채 흔들리고있는것이다. 지난 2011년 미국에서 일어난 반월가시위가 미국전역은 물론 자본주의세계전반으로 급속히 번져져 통치계급과 독점재벌들을 전률시킨 사실은 자본주의사회의 취약성과 멸망의 불가피성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전체 인민을 현대과학기술의 소유자로

온 나라에 과학기술중시열풍이 세차게 몰아치고있는 속에 수도 평양의 쑥섬에서는 과학기술전당건설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전체 인민을 숭고한 정신과 높은 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한 유능한 혁명인재로 키우려는것이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이다.

현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 지식경제시대이다.

오늘날 과학기술이 미치지 않는 령역이란 없으며 과학기술에 의하여 사회전반의 발전속도가 규제되고있다. 바로 그런것으로 하여 지금 세계적으로 과학기술경쟁이 치렬하게 벌어지고있다. 여기에서 기본이 과학기술인재의 육성과 확보이다. 수많은 나라들에서 인재양성에 큰 관심을 돌리고있으며 투자를 집중하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재양성이 전체 인민의 범위에까지는 미치지 못하고있으며 모든 사람들을 현대과학기술로 튼튼히 무장한 과학기술인재로 준비시킬데 대한 목표에 대하여서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있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이것은 인민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진 위대한 우리 당만이 내세울수 있고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이고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에서만 실현될수 있는 투쟁목표이다.

우리 당은 과학기술중시를 강성국가건설의 3대기둥의 하나로 틀어쥐고 교육사업에 선차적힘을 넣고있으며 과학자들과 기술자, 교육자들을 사회적으로 우대하고 적극 내세워주고있다. 최근에 새롭게 일떠선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과 은하과학자거리, 위성과학자주택지구,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을 비롯한 여러 건축물들은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 인재중시정책의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수백만의 지식인대군이 있으며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할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갖추어져있다. 가는 곳마다에 과학기술지식보급실과 전자도서실들이 건설되고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가 확립되여 누구나 배움의 나래를 활짝 펼치고있다.

평양기초식품공장, 평양화장품공장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1 280여개의 공장, 기업소, 기관들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원격교육대학들에서 학습하고있는 한가지 사실만 놓고서도 우리 식 사회주의의 참모습을 엿볼수 있다.

현실은 우리 식 사회주의야말로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인민대중중심의 가장 우월한 사회라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조학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더욱 빛내여갈 결의에 넘쳐있다.
—사리원뜨락또르부속품공장에서— 본사기자 리명남 찍음

값높은 칭호 《우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군들은 일을 잘하여 인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일군이 되여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들로부터 《우리》라고 불리우는 일군들을 제일 좋아하고 사랑하시였으며 그런 일군들을 만나실때 제일로 기뻐하시며 그들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어느해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강도의 여러곳을 찾으시여 애국헌신의 자욱을 새기시던 나날에 있은 일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구봉령의 령길을 관리하는 가족소대원들도 친히 만나시였다. 그때 어버이장군님께 그들은 당시의 도당책임일군을 《우리 도당책임비서》라고 부르면서 그를 제발 소환하지 말아달라고 무랍없는 청을 드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들의 말에서 혁명의 지휘성원,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본분을 다해가는 우리 일군들에 대한 인민들의 믿음과 사랑의 정을 절감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중은 아무에게나 《우리》라는 말을 붙이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우리》라는 말은 대중이 일군들에게 주는 가장 값높은 칭호이며 표창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언제인가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우리》라는 호칭에 대한 참으로 의미깊은 교시를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는 일군을 가리켜 《우리》라는 말을 붙여 《우리 도당책임비서》, 《우리 군당책임비서》, 《우리 지배인》, 《우리 관리위원장》, 《우리 초급당비서》라고 부르고있으며 자기들을 한집안식구처럼 돌봐주는 인민반장에 대하여서는 《우리 인민반장》이라고 하면서 존경하며 따르고있다고 하시였다. 그러시고 《우리》라는 말은 깊은 뜻을 담고있는 정말 좋은 말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우리》라는 호칭은 그 어떤 관직이나 명예칭호가 아니라 군인들과 인민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일군들에게 주는 가장 값높은 칭호이고 평가이며 진정한 인민의 일군들에 대한 존경과 사랑, 믿음과 친근감의 대명사이라고 하시며 《우리》라는 말의 참뜻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르는 일군들의 가슴가슴은 한없이 벅차올랐다.

값높은 칭호 《우리》!

위대한 장군님의 이민위천의 숭고한 뜻이 빛발치는 고귀한 그 부름은 일군들의 가슴마다에 영원한 삶과 투쟁의 지침으로 깊이 새겨지였다.

본사기자 김인선

모든 힘을 총동원, 총집중하여 봄철영농전투를 힘있게 벌리자

현실에 깊이 들어가 기술지도를 짜고든다

황해남도농촌경리위원회 일군들

황해남도의 드넓은 협동벌에서 풍요한 가을을 마중하는 모내기전투가 벌어지고있다.

관개용수가 철철 흐르던 때와는 달리 물이 부족한 불리한 속에서도 도안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 지원자들이 신심과 락관에 넘쳐 모내기전투를 다그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와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도농촌경리위원회 일군들은 모내기를 성과적으로 보장하는데서 자기들이 지닌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들끓는 현실에서 작전과 지휘를 잘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당의 사상과 의도를 환히 꿰들고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을 불러일으켜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결사관철하여야 합니다.》

얼마전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백두산3대장군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재령군 삼지강협동농장에서 모내기의 성과적보장을 위한 도적인 보여주기사업을 진행하였다.

여기에서는 모살이의 한계온도와 품종별, 모종류별에 따르는 모내기적기를 바로 정하는 문제, 포전준비를 잘하고 평당 포기수, 포기당 대수를 정확히 보장하는 문제 등 물절약형농법을 적극 받아들이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이 강조되였다. 하지만 보여주기사업을 하고 한두마디 강조한다고 하여 그것이 곧 모내기성과로 이어지는것은 아니다.

생산의 직접적담당자인 농업근로자대중이 보여주기사업에서 강조된 문제들을 자기의것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는것이 도농촌경리위원회 모든 일군들의 한결같은 견해이다.

벼모판관리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하고있는 해주시 연양협동농장 농업근로자들

일군들은 물절약형농법을 도의 많은 논면적에 받아들이는 조건에 맞게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포착하고 풀어나가는데 힘을 집중하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위원회일군들은 모내기전투장들에 나가 자신들부터가 앞장에서 농업근로자들과 한전호에 선 심정으로 기술지도를 착실히 해나가고있다. 연안군과 재령군을 비롯한 도의 여러 농촌들에 나간 위원회의 책임일군들은 수평을 잘 잡으면서 마른논써레치기를 하며 마른논에서 논두렁짓기를 한데는 물을 댄 다음 다져주기를 하도록 요구성을 높이고있다.

이와 함께 평당 포기수와 포기당 대수를 철저히 보장하며 마른논에 모를 낼 때 깊이를 알맞춤히 하면서 겉면에 젖은 흙이 보이지 않게 꼭꼭 눌러주도록 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물절약형농법을 받아들이는데서 나서는 기술적문제들을 생산자들에게 알려주고있다.

올해 물절약형농법을 많은 논면적에 받아들이는 조건에서 기술적지도를 짜고드는것은 몇몇 일군들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이점을 주목하면서 시, 군담당책임지도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이게 하고있다. 도가 군을, 군은 농장을, 협동농장은 작업반과 분조의 초급일군들을, 그들은 또 농업근로자들을 깨우치는 방법으로 우가 아래를 진심으로 도와주도록 하고있다.

도농촌경리위원회의 지도방조밑에 재령군과 연안군, 청단군의 일군들이 농사지도를 현장에 바싹 접근시키고있다. 이곳 군일군들과 담당지도원들은 협동농장들에 나가 기술원들을 잘 준비시키고 또 그들은 작업반, 분조의 초급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속에 들어가 물절약형농법을 받아들이는데서 제기되고있는 문제들을 제때에 알아보고 필요한 기술적요구들을 알기 쉽게 해설해주면서 실천적모범으로 농업근로자들을 이끌고있다.

그리하여 배천군 조옥희, 금성협동농장과 연안군 오현, 읍협동농장, 물조건이 매우 불리한 도남협동농장을 비롯한 도안의 협동농장들에서 농업근로자들은 영양단지모내기방법을 터득하면서 모내기의 질을 철저히 보장해나가고있다.

지난 시기 많은 경우 초급일군들을 대상으로 하던 기술지도가 직접 생산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고있는것으로 하여 모내기가 예상보다 빨리 진척되고있다.

당면한 모내기전투에서부터 물절약형농법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여 어떻게 하나 조국해방과 당창건 일흔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높이 세운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할 열의밑에 알곡증산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고있는 도농촌경리위원회 일군들의 혁신적인 일본새로 하여 황해남도의 농촌은 부글부글 끓고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리승철

물을 넉넉히 확보해놓고

경원군 일군들과 근로자들

경원군에서 물을 넉넉히 보장하며 모든 영농작업을 진행해나가고있다.

물확보전투를 힘있게 벌린 결과 모를 충분히 자래울수 있었고 지난 11일에는 첫 모내기를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었다.

군에서는 지금 물을 넉넉히 보장할수 있는 조건을 마련한 기초우에서 모든 영농공정들을 일정계획대로 내밀고있다.

하다면 이러한 성과는 어떻게 마련되였는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군당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자기 군에서 농사를 잘하도록 하는것입니다.》

지난 1월 어느날이였다.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 세운 새해농사작전을 료해하던 군당책임일군은 마음이 무거웠다. 위원회에서 작성한 물확보계획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것이다.

며칠후 두만강을 낀 협동농장들을 돌아보던 군당책임일군은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두만강보막이를 잘하면 많은 량의 물을 잡을수 있을것 같았다. 지난 시기에도 두만강물을 끌어들이기 위한 작전을 하였었지만 이러저러한 부족점이 있어 허실되는 물량이 적지 않았다. 물걱정이 없던 그때에는 여기에 별로 주의가 돌려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랐다.

군당책임일군은 그길로 수리부문 기술자들을 찾아갔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어보니 신심이 생기였다.

며칠후 두만강물을 리용하기 위한 보막이공사가 군적인 사업으로 힘있게 벌어져 5일동안에 해제끼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보막이를 통하여 두만강물을 관개수로 최대한 리용할수 있게 되였으며 10여개 협동농장들의 수천정보에 달하는 논밭에 물을 안전하게 보장할수 있는 돌파구가 열리였다.

두만강보막이공사가 군일군들에게 준 충격은 컸다.

자기들의 사업에서 교훈을 찾은 일군들속에서 좋은 방안들이 련이어 나왔다.

그중에서도 현재 건설중인 안원저수지에 물을 잡기 위한 사업을 미리 선행시키면서 자연흐름식물길을 형성하여 안원지구와 동림지구의 논들에 모내기철에 필요한 물을 넉넉히 보장할수 있다는 안이 나왔다. 그리고 오룡천과 금동천을 비롯하여 중소강하천들에 수백m사이를 두고 보막이를 하고 매 농장들에서 여러개의 굴포를 만들면 많은 물을 확보할수 있다는 혁신적인 안들도 제기되였다.

군에서는 물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에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찾은 물원천만 하여도 대단하였다. 찾을수록 나오는것이 예비였다.

물을 넉넉히 확보해놓은 군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지금 뜻깊은 올해 높이 세운 알곡생산목표를 수행할 신심에 넘쳐 영농전투를 다그쳐나가고있다.

특파기자 리은남

모판마다 실한 벼모를

천내군에서

천내군의 농업근로자들이 벼모판관리를 실속있게 해나가고있다.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일군들은 현지에 내려가 벼모판관리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장악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고있다.

특히 군에서는 올해 이른큰모재배방법을 비롯한 앞선 영농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인데 맞게 모판관리공들을 위한 기술전습회도 실정에 맞게 조직하여 모기르기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요구를 정확히 알고 그들이 모판관리에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도록 하고있다.

로운협동농장과 대양협동농장 농장원들이 벼모판비배관리에서 모범을 보이고있다.

이 농장들의 모판관리공들은 자신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씨뿌린 날자와 벼모의 생육상태, 날씨조건을 따져가며 모판의 온도와 습도를 알맞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다.

또한 자체로 생산한 대용비료를 모판마다에 충분히 주어 벼모들이 층하없이 자라도록 하고있다. 금성협동농장과 풍전협동농장을 비롯한 군안의 다른 협동농장들에서도 모판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고있다.

특파기자

선진영농방법을 받아들여

운산군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

알곡증산의 중요한 예비는 영농방법에서 혁신을 일으키는데 있다.

지난 몇해동안 강냉이농사를 자체의 실정에 맞게 하여 강냉이 정보당 소출을 계속 끌어올리고있는 운산군의 경험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선진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농사를 과학적으로 지어야 합니다.》

선진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일데 대한 당정책을 받들고 운산군에서는 올해에도 이미 실천을 통하여 확증된 강냉이저온영양알직파방법을 수천정보나 되는 강냉이밭 전면적에 받아들이였다.

저온영양알직파방법은 땅온도가 2~3℃ 되고 강냉이종자에서 싹이 1~2㎜정도 자랐을 때 영양단지에 씨앗을 넣은 다음 한두시간 지나 영양단지채로 땅을 7㎝정도 파고 묻어주는 방법이다.

이 방법의 좋은 점은 강냉이종자의 뿌리활성을 높여주어 영양물질을 많이 빨아들일수 있게 함으로써 초기생육을 보장하는데 유리하고 뿌리가 깊이 내려 가물피해를 적게 받는것이다. 그리고 비닐박막과 활창대를 쓰지 않으면서도 불리한 기후조건에서도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둘수 있는것이다.

이 방법을 넓은 면적에 받아들이는 경우 많은 량의 부식토와 혼보산비료를 필요로 하고 시기적으로 앞그루감자심기와 겹치는것으로 하여 많은 로력을 필요로 하지만 군에서는 몇해전부터 이 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50%의 강냉이밭면적에 이 방법을 받아들이였다. 그리하여 강냉이 정보당 수확고를 그 전해에 비하여 1.3배로 높이였다.

군에서는 우선 다섯개 지구로 갈라 지역별로 강냉이저온영양알직파방법을 위한 보여주기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협동농장들에서 뜨락또르와 부림소를 총동원하여 밭갈이를 선행시키는것과 함께 영양단지를 질적으로 찍게 한 다음 적기에 강냉이심기를 끝내도록 경제조직사업과 기술적지도를 짜고들었다.

강냉이재배면적이 비교적 많은 조양협동농장에서는 농장원들에게 새 방법의 우월성을 잘 알려주고 기술적요구를 철저히 지키도록 그에 대한 지도를 따라세웠다. 농장에서는 뜨락또르와 부림소들을 동원하여 밭갈이를 진행하는 한편 모든 력량을 집중하여 180여정보의 면적에 강냉이저온영양알직파를 적기에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당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좌리협동농장을 비롯한 군의 모든 협동농장들에서도 로력을 집중하여 강냉이심기를 적기에 질적으로 끝냄으로써 강냉이 정보당 소출을 높일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관철에 떨쳐나선 군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뜻깊은 올해를 높은 알곡증산성과로 빛내일 열의밑에 강냉이밭 전면적에 이 방법을 받아들이였다.

지금 군의 어느 강냉이밭이라 할것없이 푸르싱싱 자라는 강냉이포기들을 보느라면 이 방법이 좋다는것을 대뜸 느낄수 있다.

확실히 운산군의 강냉이농사방법이 주목된다.

군에서는 뜻깊은 올해 높이 세운 알곡생산목표를 넘쳐 수행할 열의밑에 강냉이밭비배관리를 잘해나가고있다.

특파기자 송창윤

다시한번 최고수확년도수준을 돌파할 기세로

대홍단군에서

올해 초봄 대홍단지구의 자연기후조건은 불리하였다. 온도가 급격히 내려가는가 하면 가물을 예견하는 징조가 심하게 나타났다.

날씨가 얼마나 찬지 80여개의 감자종자싹틔우기장 실내온도가 떨어지는 긴급한 정황이 조성되였다. 군에서는 시급히 비상대책을 세웠다.

군당위원회로부터 군인민위원회를 비롯한 군급기관 일군들이 일제히 현지에 나가 농장작업반장들과 함께 감자종자싹틔우기장 실내온도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세웠다.

이어 군5호농업경영위원회에서는 밭갈이를 하기 바쁘게 감자심기를 인차 따라세워 토양의 습기를 보존할수 있게 하였고 감자종자를 될수록 깊이 묻도록 하였다. 그리고 여름에 줄기와 잎이 무성하게 자라 밭고랑을 충분히 덮어줄수 있게 감자종자에서 싹눈의 개수를 늘이게 하였다.

지금 군안의 당조직들은 감자심기가 진행되는 포전들에서 화선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온 대홍단벌이 부글부글 끓어번지게 하고있다.

조국해방과 당창건 일흔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 대홍단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다시한번 최고수확년도수준을 돌파할 열의에 넘쳐 감자심기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전철주

농사를 함께 책임지는 립장에서

많은 지원로력을 농촌에

사리원시에서

사리원시에서 벼영양단지모내기를 받아들인 조건에 맞게 농촌에 모든 력량을 총집중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시에서는 책임일군들이 앞장에서 서서 포전들을 밟으며 해당 일군들과 함께 농촌지원로력을 하루평균 얼마나 동원시켜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산출하여 긴장한 로력문제를 풀수 있게 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사는 시기를 놓쳐서는 안될 계절적특성을 가지고있는것만큼 농촌에 대한 로력지원사업을 잘 조직하여 농촌을 로력적으로 적극 도와주어야 합니다.》

얼마전 시당위원회에서는 올해 모내기철에 긴장하게 제기될 로력문제를 풀기 위한 협의회가 있었다.

초보적인 타산에 의하면 시의 전면적에서 모내기를 최적기에 와닥닥 해제끼자면 하루에 계획된 면적의 모내기를 무조건 하여야 하였다. 수자는 평년과 비슷하지만 문제는 많은 면적에서 마른논써레를 치고 벼영양단지모를 내야 하는것으로 하여 더 많은 로력을 필요로 하고있었다.

농장원 하루모내기정량을 물을 댄 포전에서는 얼마, 벼영양단지모를 내는 경우에는 얼마로 보고 농장원들로 모뜨기와 기타 모내기준비작업까지 하는것으로 보면 결정적으로 로력이 모자랐다. 하루평균 근 60정보에 해당한 면적에 모를 낼 로력이 요구되였다.

협의회에서는 지원로력자들의 출퇴근거리와 작업시간, 농사일에 대한 익숙정도까지 구체적으로 타산하여 마른논에서 벼영양단지모를 낼 때 하루 한사람의 정량과 시적으로 지원로력을 얼마나 보장해주어야 하는가 하는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하루평균 농촌지원로력수를 결정하였지만 그만한 로력을 어떻게 보장하겠는가 하는것이 문제였다. 모내기전투에 지원로력으로 내보낼수 있는 시의 로동자, 사무원들의 수가 모자랐다.

긴장한 영농전투때마다 한몫씩 해제끼는 농촌의 년로보장자들과 비생산로력들을 동원하자는 안이 나왔으나 그것 역시 농촌의 예비로력이지 지원로력은 아니였다.

시당책임일군이 한마디 하였다.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방법으로 시안의 가두녀맹원들이 모내기전투에 떨쳐나서도록 하자는것이였다. 모두가 인정하는바와 같이 올해에도 가두녀맹원들이 사상적으로 농촌지원전투에 떨쳐나선다면 그것은 큰 로력예비였다.

협의회에서는 시의 책임일군들이 한개 동씩 맡아가지고 가두녀맹원들속에 들어가 정치사업을 벌리면서 그들을 모내기전투에로 적극 동원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긴장한 지원로력문제를 푼 시에서는 지금 모내기전투에 모든 력량을 총동원하고있다.

특파기자 김천일

양수동력을 우선적으로 보장

자강도송배전부에서

자강도송배전부에서 농사에 필요한 전력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가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송배전부에서는 농촌에 전기를 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휘부를 내오고 봄철영농전투로 들끓는 협동농장들의 양수설비들을 만부하로 돌릴수 있게 하는데 큰 힘을 넣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촌에 양수용전력을 제대로 대주어야 하겠습니다.》

지휘부의 일군들은 중강군, 만포시, 장강군, 시중군을 비롯한 논이 많은 시, 군들과 밭이 많은 시, 군들의 실정에 맞게 선후차를 바로 정하고 시, 군별교차생산조직을 짜고들면서 농업부문에서 요구하는 동력과 양수용전력을 원만히 보장하고있다.

지휘부의 일군들은 농촌에 동력과 양수용전력을 보장하는데서 자연피해에 의한 사고가 없도록 대책을 예견성있게 세우고있다.

이와 함께 시, 군송배전소들의 변전소들에서 전기설비들의 성능을 좋게 하여 질좋은 전력을 중단없이 협동농장들에 보내주도록 지도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시, 군송배전소들에서는 협동농장들과 이어진 선로상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전기선들을 전력의 도중손실이 적은 전기선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이 사업에서 강계시, 동신군, 장강군송배전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모범을 보이고있다.

도송배전부의 일군들은 변압기기름, 애자를 비롯한 많은 전기설비부속품들과 자재를 마련하여 시, 군들의 변전소들에 공급해주었다.

도안의 변전소들의 로동자들은 설비관리, 기술관리에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면서 무사고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지휘부의 일군들은 전력감독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시, 군들에 내려간 도송배전부의 전력감독원들은 시, 군송배전소들에서 관개관리소, 농기계수리기지들과 협동농장들에서 요구하는 동력과 양수용전력을 우선적으로 보내주며 농촌에 공급되는 전력을 돌려쓰는 일이 없도록 감독통제사업을 엄격히 하고있다.

시, 군송배전소들의 전력관리원, 전력감독원들도 농업부문의 여러 단위들에서 전력랑비를 없애고 공급되는 전력을 최대한 효과있게 쓰도록 힘껏 도와주고있다.

도송배전부의 일군들은 농촌에 공급되는 동력과 양수용전력보장정형을 매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즉시에 풀어주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있다.

특파기자 동세웅

현실에서 주목되는 농업생산경험

능률높은 영양단지모내는기계 개발

숙천농업대학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와 화학화를 다그쳐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줄이고 농민들을 힘든 로동에서 완전히 해방하여야 합니다.》

지난 7일 평원군 원화협동농장에서 평안남도 농업부문 일군들을 위한 기술전습회가 진행되였다. 이번 기술전습회에는 당의 뜻대로 뜻깊은 올해에 물절약형농법을 도입하는 조건에 맞게 모내기방법과 함께 그에 따르는 각종 농기계, 농기구들이 출품된것으로 하여 참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숙천농업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이 창안제작한 영양단지모내는기계가 참가자들의 특별한 관심을 끌었다.

새형의 모내는기계는 모적재판, 전동함, 안내홈, 이송장치 등으로 되여있다. 규격이 3㎝×3㎝ 되는 영양단지모를 일정한 간격으로 꽂을수 있게 만든 이 모내는기계는 종전의 모내는기계와 같이 주행속도가 높을뿐만아니라 평당 포기수도 정확히 보장할수 있게 설계되였다.

이 모내는기계는 종전의 모내는기계의 주행장치만 그대로 리용하고 다른 장치들은 새롭게 착상하고 설계하였다.

우선 부피가 큰 영양단지모를 련속적으로 공급해줄수 있게 종전의 모통대신에 모적재판을 설치하였다. 모적재판은 8개로 되여있는데 매 적재판에 다섯줄씩 판식으로 된 영양단지모를 75개 놓을수 있게 하였다.

또한 모적재판에 놓은 영양단지모를 일정한 간격으로 끌어내릴수 있도록 치차를 설치하고 밀턱을 새롭게 가공하였다. 그리고 모손설치각도를 새롭게 설정하고 모손모양도 달리하였다. 그리하여 기술적요구에 맞게 단지모가 잘 꽂히게 하였다.

이와 함께 모적재판과 이송장치, 배판을 조절하여 두줄모아심기를 할수 있게 하였는데 모적재판 두개사이간격을 20㎝, 다음간격은 30㎝로 정하였다. 이 모내는기계로는 50포기로부터 80포기까지 조절하여 모를 낼수 있게 되여있다.

이렇게 만든 모내는기계는 모적재판에 한번놓은 영양단지모로 7.5m의 거리를 전진하면서 모를 꽂을수 있다.

작업능률은 교대당 1.7~2정보이다.

모내는기계는 장치의 구조가 간단하므로 어디서나 쉽게 만들수 있다.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적극 다그칠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이곳 교원, 연구사들은 많은 단위들에서 영양단지모를 받아들이는데 맞게 그에 따르는 모내는기계를 새롭게 제작하기 위한 사업에 적극 달라붙었다. 과학연구소 소장 윤혁철동무를 비롯한 연구집단은 콤퓨터모의시험을 하는 과정에 몇가지 기술적인 문제만 풀면 얼마든지 자체로 능률이 높은 영양단지모내는기계를 만들수 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여기서 신심을 얻은 교원, 연구사들은 여러곳에 나가 부분품들을 가공하면서 모내는기계제작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자체로 풀어나갔다.

처음에 모손을 비롯하여 모꽂는 장치를 개조해놓고보니 동작이 잘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안고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면서 농기계제작에 힘과 지혜를 합쳐나갔다.

대학의 당, 행정일군들이 걸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풀어주면서 그들을 적극 불러일으켰다.

장광혁, 김경철동무를 비롯한 교원, 연구사들이 현지에 나가 농장원들을 만나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밀턱의 걸음주기를 바꾸면 능히 종전의 모내는기계처럼 모손이 좌우로 움직여 단지모가 꽂힐수 있다는 기발한 착상을 하였다. 실장 길영덕동무를 비롯한 교원, 연구사들은 종전과 달리 모손을 가공하여 포기당 대수를 고르롭게 보장할수 있게 하였다. 원화협동농장의 일군들과 기계화작업반원들이 이들의 투쟁을 적극 도와나섰다.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가 벌어진 과정에 제일 어려운 문제로 나섰던 밀턱을 새롭게 창안제작하고 련이어 모적재판과 모손, 안내홈, 이송장치 등을 개조하였다.

이 기계로 모내기를 진행하고있는 평원군 원화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반향은 대단하다.

지금 당의 뜻을 받들고 분발해나선 이곳 교원, 연구사들은 영양단지모내는기계를 만든 경험에 기초하여 새롭고 능률이 높은 농기계를 창안제작하기 위해 힘쓰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정성일

‖공동구호에서‖

아버지, 어머니세대들처럼 청춘시절을 빛나게 살라!

후대들에게 물려주는 값높은 유산

속도전청년돌격대 제7려단 돌격대원들의 생활을 두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의 전세대가 후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장 값높은 유산은 정신도덕적유산입니다.》

혁명의 전세대들은 후대들에게 무엇을 넘겨주어야 하는가?

이 물음에 떳떳이 대답하는것은 조국과 인민의 요구, 혁명의 요구이다.

속도전청년돌격대 제7려단 2대대 대원인 박철남동무가 한 말이 잊혀지지 않는다.

《우리 집에는 1980년대 북부철길공사장에서 위훈을 세운 어제날의 속도전청년돌격대원이였던 어머니가 가보처럼 여기는 돌격대제복이 있습니다. 이젠 색이 다 바랬지만 어머니는 자주 그 옷을 펼쳐들고 청춘시절을 돌이켜보군 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돌격대시절 소문난 혁신자였다고 한다. 다른 대원들이 모래 한삽을 뜨면 두삽을 떴고 건설장의 함마명수로 소문내며 이악하게 일했는데 제대될 때에는 몹시 서운해하였다. 가정을 이룬 후에도 그는 색날은 돌격대제복을 집바람벽에 걸어놓고 늘 그 시절을 추억했고 아들이 대여섯살될 때부터는 줄곧 너도 이담에 돌격대원이 되렴 하고 말했다고 한다.

그래서 박철남동무는 철이 들면서부터 길가에서 지나가는 돌격대원만 보아도 스쳐보지 않고 꼭 다시 뒤돌아보군 하였다.

그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어머니의 소원대로 돌격대에 입대하였다. 《속도전》이라는 명칭과 더불어 불이 번쩍 나게 꽝꽝 일을 하고싶었고 피가 한동이씩 끓는 청춘시절에 뭔가 큰일을 하고싶은것이 그의 심정이였다.

그는 돌격대에서 처음 미장하는 일부터 배웠다. 눈에 익고 손에 설다지만 눈썰미가 있고 손동작이 빠른 그는 인츰 미장작업의 묘리를 터득하였다. 헌데 미장칼을 다루는 그의 마음이 뜨겁지 못하였다.

위성과학자주택지구건설때였다. 하루는 대대에서 미장경기를 조직하였는데 박철남동무는 30여년간 돌격대생활을 해오고있는 한 미장공과 함께 일하게 되였다. 사기가 났다. 기능공과 한조가 되였으니 그날 경기는 먹어놓은 떡이였다. 헌데 한참 잽싸게 손을 놀리며 미장을 해가던 기능공이 미장칼을 놓고 박철남동무가 미장한 벽을 손으로 살며시 어루만지는것이였다. 경기생각에 조급한 나머지 초벌미장을 대충 하였던것이였다. 미장한 벽의 끄트머리들을 고루 살피며 손질해가는 기능공의 모습을 본 그는 속이 뜨끔해났으나 인차 머리를 저었다.

(초벌미장인데 뭐. 그다지나…)

그의 이 속마음을 알아차리기라도 한듯 기능공은 이렇게 말했다.

《건설자는 자기의 창조물에 마음을 남긴다네. 여기에 비록 박철남이나 김명호란 이름은 새겨지지 않아도 건설자의 마음만은 새겨지지. 명심하게.》

그들의 등뒤에서 한동안 벌어진 일에 대해 눈여겨 살피던 대대장 리광일동무는 그날 저녁 박철남동무를 차근히 일깨워주었다.

사람에게 있어서 명예도 중요하다. 허나 무엇보다 중요한건 조국이 잊지 않는 사람이 되는거다. 누구나 조국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조국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건 쉽지 않다. 조국이 주는걸 누리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국의 모든것을 아끼고 그것을 더 늘이기 위해 자기를 아낌없이 바치는 사람을 조국은 잊지 않는다. 동무의 어머니랑 우리의 전세대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는가.

좋은 말이였다.

박철남동무는 그날처럼 당과 수령의 뜻을 심장으로 받든 어머니세대가 일떠세운 이 땅의 모든것이 귀중하게 여겨진적이 없었다. 그는 아버지, 어머니세대들의 그 정신을 이어가고싶었다. 그래서 조국이 잊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고싶었다.

그후 그의 일본새는 달라졌다. 이제는 그도 기능공이 되였고 혁신자가 되였다.

7려단에는 이런 돌격대원들이 많다. 1970년대 돌격대초창기부터 돌격대원으로 일해온 아버지와 한대대에서 일하는 4대대 돌격대원 김봄동무, 승벽심이 강한 형제분대장들인 2대대의 김진수, 김진명동무들…

려단의 자랑중의 자랑은 녀성돌격대원들이다.

그들속에는 로동자부부의 외동딸로 고이 자란 3대대 부소대장 리향희동무도 있다.

처음 돌격대생활을 시작했을 때도 그랬지만 그는 지금도 자주 어머니의 편지를 받군 한다. 어머니는 편지마다에서 두번다시 오지 않을 귀중한 청춘시절을 값있게 빛내여야 한다고 당부하군 한다. 그럴 때면 향희동무는 마음속으로 결의다진다. 한생 로동으로 나라앞에 성실한 아버지, 어머니처럼 나의 청춘시절도 빛내이리라고.

화려한 차림이 아니고 분내풍기는 얼굴은 아니지만 돌격대제복을 입은 그들의 모습은 더없이 돋보이고 자랑스럽다. 그것은 조국땅 어디서나 당이 바라는것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일한 전세대들처럼 귀중한 청춘시절을 깡그리 바쳐가고있기때문이다.

지금 려단의 돌격대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을 높이 받들고 과학기술전당건설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을 맡고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그 앞장에는 전세대 돌격대원들과 함께 그들의 투쟁정신을 이어받은 우리의 새 세대 돌격대원들도 서있다.

그들의 자랑스러운 모습은 말해주고있다. 그 어떤 재부에도 비기지 못할 정신적유산—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애국의 정신, 불굴의 투쟁정신을 부모들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후대들, 새 세대들이 있어 혁명선렬들이 피흘려 찾고 지킨 이 땅의 래일은 더 밝고 아름다울것이라고.

본사기자 오은별

청년전위, 그 영예 빛내이며

연탄군 송죽목화전문협동농장 청년작업반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청년들처럼 당과 조국과 인민에게 충실하고 성실하며 순박하고 용감한 청년들은 세계 그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전 어버이수령님의 유훈과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관철을 위하여 연탄중학교(당시) 청년동맹, 소년단책임지도원 윤명식동무와 군안의 중학교졸업생 50명이 청년작업반을 뭇고 새로 조직된 연탄군 송죽목화전문협동농장으로 탄원하였다.

산도 떠옮길 기세로 달려나온 그들은 농장적으로 제일 척박한 땅을 맡아나섰다.

호미를 대면 돌 긁히는 소리가 아츠럽게 울리고 삽으로 조금만 파면 모래, 자갈이 드러나는 땅, 원래부터 메마르던 땅에 장마비에 불어난 강물까지 휩쓸어 흙보다도 돌이 더 많았다.

하지만 그들은 순간의 주저도 없이 토지개량전투에 달라붙었다.

손끝이 닳도록 돌들을 추어내고 어깨에 피멍이 지도록 진거름을 져날랐다.

그렇게 기름지운 땅에 청년들은 첫 씨앗을 뿌렸다.

여느 알곡작물과는 달리 많은 품을 들여야 하고 또 난생처음 해보는 목화농사였지만 청년들은 하나하나 이악하게 농사법을 터득해나갔으며 버림받던 땅에 목화솜풍년을 안아왔다.

이렇게 첫해농사에서부터 사람들을 놀래운 청년작업반원들은 해마다 목화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무슨 힘이 있어 책상물림의 애젊은 청년들이 오랜 실농군들도 머리를 젓던 돌밭을 옥토로 만들었으며 흙먼지만 날리던 곳에 목화바다를 펼쳤던가.

이 물음앞에 설 때마다 작업반장 황보명학동무를 비롯한 청년작업반원들 누구나 돌이켜보는 추억이 있다.

어느해 초봄 군의 책임일군이 차에 싣고온 지함들을 받아안던 청년들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지함안에 냉이며 달래를 비롯한 봄나물들이 가득했던것이다.

《군안의 인민들이 동무들에게 보내는거요. 아버지, 어머니들의 성의로 알고 받아두오.》

향긋한 나물향기가 폐부에 스며드는 순간 청년들의 눈가에 뜨거운것이 고여올랐다.

우리 군에도 청년작업반이 태여났다고 그리도 기뻐하며 농장으로 떠나는 날 모두가 떨쳐나와 열렬히 환송해주던 군내인민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저저마다 농장에 달려나와 합숙이며 청년학교 등 작업반건물들을 번듯하게 일떠세워주고 청년들이 정말 용타며 손달구지에 남새모까지 가득 싣고 찾아오던 고마운 사람들, 정든 집을 떠나 이곳으로 달려온 청년들이 자기 자식들 같다며 뜨거운 정을 바쳐온 농장의 일군들…

그들모두의 모습이 아버지, 어머니들의 모습으로 안겨왔다.

그 모습에서 청년들은 크나큰 힘을 받아안았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관철에서 청년들이 앞장서기를 바라는 아버지, 어머니세대의 절절한 기대였으며 청년들을 시대의 주인공, 혁명의 계승자로 내세워주고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는 어머니조국의 천금같은 믿음이였다.

그 믿음에 떳떳하기 위하여 이곳 청년작업반원들은 언제나 투쟁의 앞장에서 내달렸다.

올해에도 영양단지찍기를 농장적으로 제일먼저 끝낸 이곳 청년작업반원들은 선진영농방법들과 새 품종의 목화종자를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목화송이 만발한 자기들의 포전에 모시게 될 그날을 그리며 청춘의 열정을 다 바쳐가는 청년작업반원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혁명의 전세대들이 지녔던 투쟁정신을 빛나게 이어나가는 계승자들의 참모습을 보았다.

본사기자 승철진

불타는 지향, 아름다운 리상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년들은 당과 혁명의 요구, 조국의 부름에 언제나 피끓는 심장으로 화답하여온것처럼 오늘의 력사적진군에서 청춘의 힘과 지혜, 열정을 다 바쳐 당의 청년전위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혁명의 년대기들마다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 귀중한 청춘시절을 아낌없이 바친 아버지, 어머니세대들처럼 살며 일해나가려는것은 오늘 우리 시대 청년들에게 있어서 불타는 지향으로, 더없는 리상으로 되고있다.

당의 부름에 심장으로 화답하며 압록강반의 청춘궤도에 더운 땀을 바쳐가는 북부철길청년돌격대원들의 투쟁이 그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육탄이 되여

평안북도려단 2대대 지휘관들과 청년돌격대원들이 30여리밖에 있는 침목용통나무를 공사현장으로 운반할 때였다.

조건이 불리하였지만 돌격대원들은 드세찬 돌격전을 벌려 짧은 기간에 통나무를 실어올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여놓았다.

대오의 앞장에는 언제나 대대장이였던 리철민동무가 서있었다.

마지막 한차분이 남았을 때였다. 깊은 밤 대대의 지휘관들로 운반전투를 조직한 리철민동무는 그 마지막차에 또다시 올랐다.

이제 얼마후면 대대가 받은 전투과제를 성과적으로 끝내게 되는것으로 하여 그의 마음은 절로 흥겨웠다.

그러나 침목용통나무를 실은 자동차가 자작령고개길에서 미끄러져내릴줄이야.

그 자리를 피하면 살수 있었지만 리철민동무는 위급한 순간 자기 한몸을 서슴없이 내대여 혁명동지들을 구원하였다.

단 13일만에

갑자기 쏟아져내린 폭우로 하여 평양시려단이 맡은 철길구간의 하천옹벽이 무너져내렸을 때였다.

너무도 엄청난 피해앞에서 사람들은 그것을 복구하자면 적어도 석달은 걸려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청년돌격대원들에게는 이 말이 통하지 않았다.

그때 청년돌격대원들에게는 해주—하성사이 철길공사를 단 75일동안에 해제낀 아버지, 어머니세대들의 투쟁모습이 떠올랐다.

90일을 5분의 1로 줄이자.

이렇게 결심한 지휘관들과 청년돌격대원들은 화약에 불이 달린것처럼 전격전을 벌려나갔다. 날마다 위훈에로 부르는 힘찬 노래소리가 울려퍼지고 전투장은 불도가니마냥 끓어번졌다.

한몸이 그대로 침목이 되고 옹벽이 될 결사의 각오를 안고 떨쳐나선 지휘관들과 대원들의 집단적혁신으로 하여 피해복구전투는 단 13일만에 끝났다. 그야말로 기적이 창조되였다.

처녀의 진정

평안북도려단 림철순동무의 부모들은 어제날 북부철길건설장에서 청춘시절을 보냈다.

백병전을 방불케 하는 차굴측배수타입공사의 나날 며칠째 고열로 신음하면서도 작업을 계속하던 림철순동무는 더는 몸을 지탱하지 못하고 그만 현장에서 쓰러지게 되였다. 함께 일하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이 차굴밖으로 등을 떠밀자 그는 공사가 끝나기 전에는 절대로 차굴에서 나갈수 없다고 하면서 늘 간수하고 다니던 아버지의 편지를 보여주는것이였다.

편지를 읽어내려가는 전투원들의 가슴마다에는 뜨거운것이 세차게 맥박쳤다.

쓰러지면서도 전투장을 뜨지 않은 처녀의 진정,

이것은 아버지, 어머니세대들처럼 조국앞에 지닌 새 세대 청년전위의 본분을 훌륭히 수행해나가려는 우리 청년들의 의지였다.

본사기자 홍성철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 평안북도려단에서—

조선속도창조의 불길높이 말은 대상공사에서 위훈을 떨칠 결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김광혁 찍음

제2차 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 참가자들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제2차 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 참가자들이 유서깊은 혁명의 성지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대회참가자들은 김보현선생님과 리보익녀사의 묘, 김형직선생님과 강반석녀사의 묘에 화환들과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묵상하였다.

조국의 해방과 부강번영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신 어버이수령님과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만경대일가분들의 고귀한 생애를 되새기며 그들은 만경대혁명사적관을 참관하고 고향집뜨락에 들어섰다.

그들은 우리 청년들을 고상한 집단주의정신과 숭고한 정신도덕적풍모를 지닌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 시대의 영웅으로 키워주시고 내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안고 고향집에 보존되여있는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대회참가자들은 또한 대성산혁명렬사릉을 참관하였다.

그들은 항일의 불길속에서 수령결사옹위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시고 주체혁명위업의 창창한 미래를 열어놓으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렬사릉의 화환진정대에 화환과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혁명렬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렬사릉을 돌아보면서 그들은 항일혁명투사들이 지녔던 숭고한 정신세계와 투쟁기풍을 따라배워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나갈 결의를 굳게 가다듬었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찾은 참가자들은 전승열병식광장에서 답례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인사를 드리였다.

그들은 전승기념탑 《승리》상앞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훌륭히 꾸려진 기념관의 여러 관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은 선렬들이 피로써 지킨 이 땅우에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쳐갈 열의로 가슴 불태웠다.

대회참가자들은 이밖에 조선인민군무장장비관, 중앙계급교양관을 참관하였다.

경제강국건설에로 추동하는 선전화들 새로 창작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온 나라 천만군민을 경제강국건설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선전화들을 창작하여 내놓았다.

선전화 《농업생산에서 일대전환을!》에는 물절약형농법을 비롯한 과학농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농업생산에서 일대 전환을 가져올데 대하여 호소하는 농업근로자의 모습이 형상되여있다.

황금해의 새 력사를 창조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따라 과감한 어로전을 벌려 사회주의바다향기가 온 나라에 차넘치게 하려는 수산부문 로동계급의 열의가 선전화 《사회주의바다향기 온 나라에 차넘치게!》에 뜨겁게 맥박치고있다.

선전화 《석탄전선을 힘있게 지원하자!》는 인민경제의 선행부문이며 생명선인 석탄전선을 적극 도와나설것을 열렬히 호소하고있다.

선전화들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와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혁명적열정을 더욱 북돋아주게 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타이왕국사이의 외교관계설정 40돐기념

연회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타이왕국사이의 외교관계설정 40돐에 즈음하여 외무성에서는 12일 기념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돈 쁘라맛위나이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타이외무성 대표단 성원들이 초대되였다.

리수용외무상, 리길성부상을 비롯한 외무성 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회참가자들은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타이왕국 국왕 부미볼 아둘리야데즈페하의 건강을 축원하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의 공고발전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조선중앙통신】

제15차 5.21건축축전 개막

제15차 5.21건축축전이 개막되였다.

나라의 건축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할 이번 축전에는 전국의 건축설계가들과 건설기술자들, 과학교육기관 일군들이 제출한 400여건의 건축설계현상모집작품, 과학론문들과 30여건의 건설설계프로그람 및 다매체편집물들, 건재품들이 출품되였다.

개막식이 12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있었다.

동정호건설건재공업상, 권성호국가건설감독상, 김경준국토환경보호상, 강영수도시경영상, 조석호 수도건설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 설계, 시공, 건재, 감독, 미술창작단위, 과학, 교육기관의 일군들, 건축가, 기술자, 교원, 연구사, 창작가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개막사를 심영학 조선건축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밑에 인민의 꿈과 리상을 꽃피우는 건설의 새로운 대번영기가 펼쳐지고 해마다 건축축전이 전사회적인 관심속에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모든 참가자들이 당의 원대한 구상을 받들어 조선속도창조의 열풍을 더욱 고조시켜 선군조선의 새로운 건설력사를 빛내이는데 적극 기여할데 대하여 강조하면서 축전개막을 선언하였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축전장을 돌아보았다.

제10차 건축미학토론회 진행

제10차 건축미학토론회가 12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오수용동지와 김용진내각부총리, 관계부문 일군들, 설계, 시공, 건재, 감독, 미술창작단위, 과학연구, 교육기관의 일군들, 건축가, 기술자, 교원, 연구사, 창작가들이 토론회에 참가하였다.

국가건설감독상 권성호, 조선건축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심영학, 국가설계지도국 부국장 정희철, 백두산건축연구원 실장 남창호, 평양건축종합대학 건축과학연구소 소장 옥남철이 토론하였다.

그들은 지난해 조선속도창조열풍으로 건설의 대번영기를 안아오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불멸의 업적과 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어울리는 기념비적건축물들이 일떠선데 대하여 과학리론적으로 론증하고 당정책적요구에 맞게 주체건축을 발전시켜나가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토론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건설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하여 주체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민족성과 현대성을 옳게 결합시키며 세계적수준을 릉가하고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는 기념비적건축물들을 비상히 빠른 속도로 일떠세워야 합니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건설령도업적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 선군조선의 새로운 건설력사를 창조하실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건설부문이 사회주의경제강국의 튼튼한 기틀을 마련하며 21세기의 문명개화기를 앞장에서 열어나가도록 정력적으로 령도하신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당, 전군, 전민을 조선속도창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고 건설전투장마다에서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을 높이 발휘하여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것을 실천으로 보여주고 조국의 슬기와 기상을 온 세상에 과시하도록 하시였다고 말하였다.

당의 주체적건축사상과 리론, 건설정책을 철저히 구현하도록 세심히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가 있어 위성과학자주택지구,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연풍과학자휴양소를 비롯한 주체건축의 기준과 표준으로 되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수많이 일떠서게 되였다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헌신으로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고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상건설을 적극 다그치게 하심으로써 사회주의경제강국, 문명국건설의 터전을 마련하는데서 근본적인 전환이 이룩되고있다고 말하였다.

토론자들은 기념비적건축물건설에서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 편의가 최우선시되고 인민들의 정서와 미감에 맞게 사상예술성과 실용성이 보장된데 대하여 깊이있게 해설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건축창조를 우리 식으로 하도록 이끄심으로써 주체성과 민족성, 독창성과 편리성, 조형예술성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 본보기적건축물들이 솟아나게 되였다고 강조하였다.

당정책의 요구대로 설계와 시공 등 건설의 모든 령역에서 선 편리성, 선 미학성, 선 후대관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여 산업, 교육문화시설과 살림집들을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건축물들로 일떠세울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토론자들은 모든 건설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원대한 구상을 현실로 꽃피워갈 불타는 결의를 안고 새로운 평양정신, 평양속도창조의 열풍으로 전투장마다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키며 10월의 대축전장을 빛나게 장식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외세와의 공조는 민족리익을 해치는 역적행위

외세와의 공조는 남조선괴뢰들이 동족대결을 위해 매여달리는 주되는 수법이다. 외세를 찾아다니며 동족을 헐뜯고 그에 반공화국대결공조를 청탁하는 괴뢰패당의 못된 버릇은 현 괴뢰당국에 이르러 더욱 우심하게 나타나고있다.

얼마전 남조선집권자가 아메리카의 이 나라, 저 나라들을 행각하며 《대북압박공조》를 청탁한 사실, 괴뢰당국자들이 핵문제와 관련하여 외세와 마주앉아 불순한 모의판들을 벌리고 반공화국 《인권》모략책동에 계속 열을 올리고 있는 사실도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외세와 손을 잡고 동족과 대결하는 괴뢰패당의 반민족적책동이 계속되는 한 북남사이의 대화와 관계개선이 이룩될수 없다는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외세와의 공조는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격화시키는 용납 못할 범죄행위이다.

외세와의 공조는 사대주의와 동족대결의식의 발로이다. 반공화국적대시정책을 실시하는 외세와의 관계를 중시하며 그에 의존하는 이자체가 동족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의 표시이다.

미국은 우리 민족의 분렬의 장본인이며 조국통일의 악랄한 방해군이다. 더우기 미국은 자주와 선군, 사회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아가는 우리 공화국을 극도로 적대시하면서 고립압살하려고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우리 민족은 응당 민족의 화해와 단합, 자주통일을 방해하면서 조선반도에서 또 한차례의 침략전쟁을 도발하려는 미국에 힘을 합쳐 공동으로 맞서야 한다. 그것이 민족적리익을 고수하는 길이다.

하지만 남조선괴뢰들은 동족은 외면하고 한사코 미국의 옷섶에 매달리며 반공화국압살을 청탁하고있다. 이것은 북남관계발전의 기초와 근본을 허물고 민족의 운명을 외세의 롱락물로 내맡기는 수치스러운 매국반역행위이다.

현시기 파국에 처한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민족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자면 무엇보다 외세가 아니라 동족을 우선시하며 민족공조를 실현해야 한다. 이것을 거부하고 외세에 계속 추종하며 반공화국대결을 위해 그와 공조한다면 북남관계개선은 고사하고 불신과 대결이 격화되며 나중에는 전쟁밖에 터질것이 없다. 조국통일운동의 간고한 력사도 남조선당국이 동족과는 담을 쌓고 외세와 야합하여 대결의 길로 나간다면 북남관계는 파국을 면할수 없으며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위험만 커지게 된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위업을 가로막고 민족의 자주적운명개척을 방해하는 외세와의 공조는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남조선의 현 괴뢰집권세력은 침략적인 외세와의 공조강화로 북남관계를 파괴하고 동족대결을 심화시킨 추악한 매국역적무리이다.

폭로된바와 같이 괴뢰보수패당은 미국과의 《동맹》강화를 최우선과제로 내세우고 상전과의 공조밑에 반공화국대결소동을 악랄하게 벌리였다. 그들이 《대북정책》으로 들고나온 《신뢰프로세스》라는것은 미국상전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그대로 본딴것으로서 외세와의 공조로 동족의 사상과 제도를 해치는것을 근본목적으로 하고있다.

괴뢰패당은 미국을 비롯한 외세와의 공조로 경제적제재와 정치군사적압력을 강화하면 우리가 주저앉을것이라고 어리석게 타산하면서 외세를 등에 업고 우리를 고립압살하기 위해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그것은 미국의 반공화국핵소동에 장단을 맞추면서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을 거부하고 대결소동에 광기를 부린데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남조선에서 현 《정권》의 출현이후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북남관계개선의 기회가 여러차례 마련되였다. 하지만 그때마다 괴뢰들은 《대화를 위한 대화는 없다.》느니, 《선핵포기의지부터 보여야 한다.》느니 뭐니 하고 떠벌이면서 대화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악랄한 반공화국도발로 그것을 완전히 파괴해버리였다.

지금에 와서 더더욱 명백해진바와 같이 괴뢰패당이 북남대화의 기회를 무분별한 대결소동으로 망쳐놓은것도, 그 무슨 《원칙》과 그 누구의 《책임》을 운운하며 《5.24조치》의 철회를 거부하고 대화와 협력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한것도 어떻게 하나 외세와의 공조로 반공화국압살야망을 실현하기 위한데 그 목적이 있었다.

외세에 적극 추종하며 그와 야합하여 동족을 해치려는 괴뢰패당의 반역적정체는 그들이 미국과 함께 반공화국 《인권》소동과 삐라살포망동에 열을 올리고 대규모적인 북침합동군사연습을 뻔질나게 감행한데서도 낱낱이 드러났다. 괴뢰들이 있지도 않는 《북인권》문제에 대해 고아대며 국제적인 반공화국모략광대극을 계속 펼치고 우리의 자위적인 핵억제력을 《위협》으로 걸고들며 북침합동군사연습의 도수를 더욱 높임으로써 북남관계는 돌이킬수 없는 파국상태에 빠지고 조선반도에서 핵전쟁발발의 위험도 극도로 고조되였다.

외세에 명줄을 걸고 북남대결에 피눈이 되여 날뛰며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팔아먹는 매국역적들의 추악한 망동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바라는 해내외의 온 겨레의 치솟는 증오와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괴뢰패당이 벌리는 외세와의 공조강화책동은 제손으로 제눈을 찌르는 어리석은 행위이다.

소경 제 닭 잡아먹기라는 말이 있다. 남조선당국이 외세에 아부굴종하며 우리 공화국을 해치기 위한 반민족적인 공조놀음에 기승을 부리였지만 얻은것이란 쥐뿔도 없으며 오히려 저들의 국제적고립만 심화시켰다.

우리 공화국은 남들같으면 열백번도 더 쓰러졌을 모진 고난과 시련을 박차고 눈부신 기적을 련이어 창조하고있으며 최후승리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적대세력의 봉쇄와 압력을 물거품으로 만들며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과 혁신을 이룩하고있는 우리 공화국의 모습은 세인의 경탄을 자아내고있다.

반면에 미국과의 반공화국대결공조에 돌아치던 괴뢰들은 스스로 난처한 처지에 빠져들었다. 남조선당국이 미국과 공모결탁하여 추진하고있는 고고도요격미싸일 《싸드》의 배비계획은 주변나라들의 강한 반발과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괴뢰들이 아무리 남조선미국 《동맹》을 《가장 성공한 동맹》, 《류례를 찾기 어려운 최상의 동맹》으로 피여올리며 상전의 요구라면 속옷까지 벗어줄 자세이지만 미국은 남조선일본관계문제에서 일본의 편을 들며 괴뢰들을 무시하고 모욕만 주고있다.

얼마전에도 미국은 일본과 《자위대》의 남조선진출을 허용하는 새로운 《미일방위협력지침》을 꾸며냄으로써 그 무슨 《주권》을 운운하는 괴뢰들을 세계면전에서 망신시키였다.

외세추종으로 빚어진 대내외정책의 총체적파산으로 현 괴뢰집권세력의 통치위기도 날로 심화되고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동족을 모해압살하기 위해 외세와의 공조에 계속 매여달릴수록 그들의 대내외적처지는 더욱 어려워질것이다.

괴뢰패당은 외세와의 공조강화에 기승을 부릴수록 차례질것은 수치와 망신, 파멸의 위기뿐이라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외세와 공조하여 동족을 해치는데서 살길을 찾으려 하는자들은 례외없이 실패를 면치 못하며 종당에는 력사와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야말것이다.

심 철 영

온 겨레를 자주통일에로 부르는 불멸의 기치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마련하여주신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과업과 방도들을 뚜렷이 명시해주고있는것으로 하여 남녘겨레의 가슴속에 불멸의 조국통일대강으로 간직되여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고수와 철저한 리행에 민족의 화합과 단결이 있고 자주통일이 있다는것은 남조선인민들의 확고한 신념이다.

얼마전 남조선의 어느 한 통일단체의 주최로 진행된 모임에서 채택된 호소문에는 이렇게 지적되여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고수, 리행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민족의 운명, 조국통일위업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철저히 고수하고 리행해나가야 한다.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리정표이며 10.4선언은 그 실천강령이다. 자주통일운동의 전진과 승리를 추동하는 위력한 보검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높이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이룩해야 한다.》

남조선의 한 재야인사는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남북의 화해와 통일의 넓은 길을 열어놓은 6.15공동선언은 김정일령도자님의 자주통일의지와 대용단에 의해 마련된 민족의 통일강령이다. 김정일령도자님의 현명한 령도의 결실인 6.15공동선언은 우리 겨레가 주인이 되여 통일의 문을 열어나갈 방향과 방도를 뚜렷이 밝혀준 불멸의 대강인것으로 하여 만사람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광주의 통일운동단체성원은 어느 한 모임에서 《내외반통일세력의 악랄한 방해책동속에서도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이 큰걸음을 내디딜수 있은것은 김정일장군님의 애국애족의 민족대단결리념과 그 구현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투쟁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었기때문이다. 김정일장군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통일을 안겨주시기 위해 력사적인 평양상봉을 마련하시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채택발표하신것은 민족사에 길이 빛날 력사적장거이다.》라고 말하여 장내를 격동시키였다.

서울에 사는 한 주민은 동료들에게 《6.15공동선언이야말로 우리 남북의 전체 인민들에게 충분히 공감되고있는것으로서 반드시 따라야 할 조국통일의 라침판이다. 6.15공동선언에서 나라의 통일문제를 외세에 의거하지 않고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한것은 우리 겨레에게 큰 신심을 안겨주었다. 6.15공동선언에서 제시된 우리민족끼리리념이야말로 민족통일위업의 승리를 확고히 기약해주고있다. 6.15공동선언대로만 하면 통일은 반드시 이룩된다.》라고 힘있게 말하였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저마다 환희로 들끓던 6.15통일시대를 그려보며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됨으로써 이남의 모든 민중은 자신들이 력사의 주체임을 자각하게 되였다.》, 《력사적인 평양상봉과 6.15공동선언, 그것은 겨레의 가슴에 비쳐든 통일의 서광이였고 갈라터진 강토에 흘러든 통일의 생명수였다.》, 《김정일장군님의 령도에 의해 민족통일대토론회와 남북로동자통일대회, 남북농민통일대회, 민족통일대축전과 같은 통일행사들이 성황리에 진행될수 있었고 남북사이의 협력, 교류사업이 활발해질수 있었다.》고 격정에 넘쳐 말하고있다.

가슴속진정을 주저없이 터놓은 그들의 이야기들마다에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조국통일사상과 로선을 가장 정당한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으로 받아안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여 자주통일의 날을 앞당겨오려는 의지가 력력히 어려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지지하며 받드는 민족공동의 자주통일대강이 있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해나가시는 또 한분의 절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기에 조국의 자주적통일은 머지않아 반드시 이룩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라 영 국

스위스단체들
북남로동자단체 공동결의문 지지

5.1절에 즈음한 북남로동자단체 공동결의문을 지지하여 스위스조선위원회와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조가 2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조선의 북남로동자단체들이 전세계근로자들의 국제적명절인 5.1절 125돐에 즈음하여 공동결의문을 발표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결의문은 북과 남의 로동자들에게 6.15공동선언발표 15돐이 되는 올해에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강화할것을 호소하였다.

결의문은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굳게 련대단합하여 반드시 제2의 6.15통일시대를 앞장에서 열어나가며 온 겨레앞에 선언한 북남로동자통일축구대회를 기어이 성사시켜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적극 도모해나가며 해내외의 온 겨레와 힘을 합쳐 6.15공동선언발표 15돐과 조국해방 70돐기념 민족공동행사의 성사를 위해 적극 협력해나갈것이라고 밝혔다.

결의문에는 력사적인 올해에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길에서 결정적인 전환과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북남로동자들의 확고한 결심이 반영되여있다.

우리는 북남로동자단체 공동결의문을 열렬히 지지하며 뜻깊은 기념일들을 맞으며 예견되는 행사들이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6.15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조선의 자주통일을 향하여 앞으로!

《시행령안》을 강압적으로 통과시킨
괴뢰패당을 규탄

남조선 《CBS》방송에 의하면 6일 《세월》호참사유가족들로 구성된 4.16가족협의회가 참사의 진상을 은폐시키려는 괴뢰패당의 망동을 규탄하였다.

단체는 이날 당국이 《국무회의》에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제한하고 특별법을 무력화시키는 《시행령안》을 끝내 통과시켰다고 비난하였다.

《정부》가 유가족들과 국민의 요구를 시종일관 무시하고 폭력으로 짓밟았다고 단죄하였다. 진상규명을 요구하여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최루액과 물대포를 쏘아댔으며 지어 감시와 촬영 등 비렬한짓을 다 하였다고 폭로하였다.

《시행령안》의 《국무회의》통과를 인정할수 없다고 하면서 옳바른 진상규명을 위해 투쟁할것이라고 단체는 밝혔다. 한편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도 《시행령안》의결을 강행한 괴뢰당국의 처사에 항의하였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정부》의 《시행령안》을 받아들일수 없다고 하면서 앞으로 자체로 시행령안을 작성하고 그에 근거하여 활동을 전개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성노예범죄를 인정할것을 요구

남조선의 《련합뉴스》, 《MBC》방송에 의하면 세계 여러 나라 력사학자 187명이 6일 일본이 과거 성노예범죄에 대해 인정할것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가장 첨예한 과거사문제중의 하나가 일본군성노예문제라고 강조하였다.

20세기에 있었던 전시 성폭력중에서도 일본군성노예제도는 방대한 규모, 군부의 조직적관리 그리고 점령지나 식민지나라 녀성들에 대한 착취라는 점에서 특히 두드러진다고 주장하였다.

과거 일본군이 녀성들을 이송하거나 관리하는데 관여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들이 수많이 발굴되였다고 밝혔다.

그중에서도 피해자들의 증언이 가장 중요한 증거이며 이것을 공식문서와 다른 사람들의 증언이 뒤받침하고있다고 하면서 수많은 녀성들이 붙잡혀 끔찍한 야만행위의 제물이 되였다는 증거는 분명하다고 지적하였다.

성명은 일본이 인권과 인도주의 등에 대해 말이 아니라 실지 행동으로 보여주며 과거 성노예범죄를 인정하라고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기만적인 《대화》타령, 감출수 없는 속심

북남관계파괴에 열을 올리던 괴뢰당국이 최근 북남사이의 대화와 관계개선문제에 대해 자주 입방아질을 하고있다.

얼마전 괴뢰통일부 장관은 《남북관계성과가 기대》된다는 수작을 늘어놓으며 북남대화에 관심이 있는듯이 생색을 냈다.

한편 괴뢰패당은 《남북회담씨나리오》를 개발한다, 《2015년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을 발표한다 하며 분주탕을 피우고있다.

조국해방 일흔돐이 되는 올해에 북남관계에서의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올데 대한 우리의 호소에 등을 돌리고 외세와 함께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발광적으로 벌리면서 조선반도에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를 조성한 괴뢰패당이 지금에와서 아무런 최책감도 없이 뻔뻔스럽게 《대화》타령을 계속 늘어놓고있는것은 그 진의도를 파헤쳐보지 않을수 없게 한다.

괴뢰들은 미국과의 합동군사훈련이 끝났기때문에 이제는 대화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떠들고있다. 하지만 오는 8월이면 남조선에서 또다시 미제침략군과 괴뢰군의 대규모적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이 벌어지게 된다. 그때에 가서 대화는 또다시 중단되고 정세는 다시금 파국상태에 처할판인데 북남관계의 근본적개선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그런 대화는 해서 무엇하겠는가. 북남관계의 파국상태는 바로 그런 악순환속에 흘러왔다. 남조선당국이 외세와 함께 벌리는 북침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온갖 반공화국대결책동을 걷어치우지 않는 한 북남대화는 결코 진행될수 없으며 설사 열린다고 해도 그것은 아무런 의의도 없는것이다.

이런 허무맹랑한 《대화》를 떠들며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무엇을 할듯이 냄새를 피우는 괴뢰당국자들에게 내외가 예리한 눈초리를 돌리는것은 당연하다.

북남관계를 저들의 더러운 정치적목적실현과 잔명유지의 롱락물로 삼는것은 력대 괴뢰집권자들이 늘 써온 비렬한 수법이다. 현 괴뢰집권세력이 다시금 거기에 매달리고있다. 그들은 북남관계문제에서라도 점수를 올림으로써 저들의 매국반역정책에 대한 날로 높아가는 민심의 분노를 눅잦히고 파멸의 위기를 모면해보려고 획책하고있다. 한마디로 말하여 괴뢰패당이 《대화》타령을 늘어놓는것은 《정권》의 존재기반을 밑뿌리채 뒤흔드는 현 통치위기로부터의 출로를 북남관계에서 찾아보려는 교활한 술책이다.

지금 괴뢰당국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있다. 외세의 동족대결정책으로 북남관계는 대화도 협력도 없고 긴장만 떠도는 최악의 파국상태에 빠지고 조선반도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외세의존에 환장한 괴뢰패당의 비굴한 사대굴종외교는 남조선의 대외적고립과 위기만 심화시키고있다. 미국은 침략적인 대외전략실현을 위해 남조선에 대한 고고도요격미싸일 《싸드》의 배비를 추진하고있으며 이로 하여 괴뢰들은 미국과 주변나라들사이에 끼워 안절부절 못하고있다. 최근에 있은 미국과 일본의 《방위협력지침》재개정놀음은 《주권》에 대한 괴뢰들의 요구를 무시한것으로 하여 괴뢰외교의 총체적실패를 뚜렷이 립증해주었다.

어디 그뿐인가. 집권자의 고집불통과 거짓말정치, 파쑈독재통치는 남조선정국을 사상 류례없는 혼란상태에 빠뜨리고있다. 지난 《대통령》선거당시 들고나온 온갖 화려한 공약들을 다 집어던지고 《개혁》의 간판밑에 근로인민들의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는 물론 생존권마저 무참히 짓밟는 극악무도한 반역정치, 수백명의 어린 생명들을 무참히 수장시킨 《세월》호대참사의 진상규명을 한사코 방해하는 반인륜적망동은 괴뢰보수패당에 대한 각계층 인민들의 분노를 더욱 치솟게 하고있다. 더우기 현 《정권》의 핵심인물들이 모두 련루된 권력형특대부정부패사건인 성완종사건은 그 무슨 《청렴》과 《도덕성》을 광고하던 괴뢰집권자를 극도로 당황망조케 하고있다.

남조선의 현 정국혼란이 《정권》붕괴에로 이어질수 있다는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최근 남조선의 한 언론기관이 현 집권자의 정책과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묻는 여론조사를 진행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응답자의 대부분이 정치, 경제, 외교, 사회, 북남관계 등 모든 분야에서 《락제》라고 평가하였다.

보수패당에 대한 극도의 불신과 반감은 대중적인 반《정부》투쟁으로 번져가고있다.

지난 5.1절을 계기로 남조선로동자들과 《세월》호참사유가족들을 비롯한 각계층 인민들이 《끝내자 박근혜》, 《박근혜 퇴진》이라는 구호를 들고 격렬한 항의시위투쟁을 벌린것은 단순히 생존권이나 보장받고 《세월》호참사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부패무능과 독단, 전횡으로 남조선에 불행과 재앙만을 몰아온 괴뢰보수패당을 단호히 심판하고 권력의 자리에서 기어이 쫓아내고야말 결사의 의지의 뚜렷한 표현이다.

그야말로 남조선민심은 반역《정권》타도에로 쏠리고있다.

이런 정세와 관련하여 얼마전 남조선의 한 언론은 현 집권자에게서 일반적으로 집권말기에 나 나타나는 통치력마비상태가 벌써부터 뚜렷해지고있다고 하면서 그런 상황이 《이렇게 빨리 올줄은 짐작하지 못했다.》고 전하였다.

괴뢰패당이 저들의 숨통을 조이며 시시각각으로 심화되는 이런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들고나온것이 바로 북남대화문제이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이 관심하는 북남대화문제를 들고나와 그들의 환심을 사고 여론의 이목을 《정권》에 대한 심판으로부터 북남관계에로 돌려보려는것이 바로 그들이 노리는것이다.

결국 남조선괴뢰들이 들고나온 《대화》라는것은 북남관계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것이 아니라 대내외정책의 총파산으로 인한 《정권》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일시적방편인것이다. 괴뢰들이 《대화》와 《민간교류추진》을 떠들면서도 북침합동군사연습의 중지나 《5.24조치》의 철폐 등 북남관계파괴요인을 제거하는것은 극력 거부하고있는것도 그것을 립증해준다. 괴뢰패당이 아무리 요술을 부리여도 북남대화를 저들의 더러운 정치적목적실현에 써먹으려는 불순한 흉심은 감출수 없다.

남조선당국자들은 기만적인 《대화》타령은 작작 늘어놓고 북남관계를 전면적으로 파괴한 저들의 용납 못할 죄악에 대해 온 민족앞에 사죄하고 대결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용단부터 내려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김 향 미

괴뢰당국의 반인민적악정을 규탄하는 남조선인민들

한 의료일군에 대한 추억
보건성 구강종합병원 과장이였던 지룡환동무

얼마전 보건성 구강종합병원을 찾았던 우리는 한 의료일군에 대한 가슴뜨거운 이야기를 들었다. 이제는 생을 마친지도 여러달이 되였지만 병원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오늘도 잊지 않고 추억하는 지룡환동무, 그는 과연 어떤 의료일군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참된 삶의 가치는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 당과 혁명을 위하여 한생을 바치는데 있습니다.》

병원에서 일해온 지난 37년동안 한번의 결근도 몰랐던 성실한 사람, 사업에서 대바르고 원칙적이였을뿐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이 제기될 때면 언제나 앞장에서 해제끼군 한 참된 보건일군,

그것만으로는 보건성 구강종합병원 과장이였던 지룡환동무의 한생에 대해 다 말할수 없다.

《나는 오늘 놀랐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주체83(1994)년 7월초 나라의 구강의학발전과 관련한 간곡한 교시를 또다시 주시였다. 우리가 일을 잘하지 못해 수령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도 인민들의 이발때문에 걱정을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 온밤 잠들수 없었다.

왜서인지 그때부터 나에게는 출근길에 나설 때마다 오늘도 일을 잘하라고 다정히 이르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음성이 귀가에 들려오는것만 같았다.》

이것은 1994년의 피눈물의 언덕에서 그가 남긴 일기의 한 대목이다.

그후 그는 정력이 넘치는 한창시절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철을 해줄 불같은 마음을 안고 하루하루를 분과 초로 쪼개가며 환자치료에 지극한 정성을 바쳤다. 나이가 들며 질병이 생겨 사람들로부터 며칠만이라도 쉬라는 말을 들을 때에도 그리고 이제는 새 세대 의료일군들이 자라 한몫하고있으니 몸을 돌보며 일하라는 권고를 받을 때에도 그는 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만근을 보장하였다.

자기가 지켜선 일터가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이 어린 혁명초소이기에 살아도 빛나는 생을 살아야 한다는 자각을 안고 그는 60이 지난 나이에도 청춘의 열정으로 새로운 보철기술을 림상실천에 받아들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그 나날 지룡환동무는 첨단보철에 요구되는 소공기구들을 자체로 만들어내는 한편 금속주조보철과 금속상틀이, 첨단기술에 의한 사기보철을 발전시키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10여년전 어느날이였다.

당시 병원의 보철2과에는 여러명의 대학졸업생들이 의료일군으로 배치되여왔다. 그들을 하루빨리 키워 인민들에 대한 의료봉사를 진행해야 할 임무가 나섰던 그때 해당 과의 과장으로 임명된 지룡환동무는 자기에게 맡겨진 환자치료를 성과적으로 보장하면서도 신임의료일군들의 림상기술수준제고에 모든 정력을 바쳤다.

그는 서로 다른 사람들의 입안특성에 맞게 보철을 하는데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기술적문제들을 알기 쉽게 알려주는 한편 지난 수십년세월 학위론문을 위해 짬짬이 모아두었던 기술자료들을 서슴없이 그들앞에 내놓기도 하였다.

그렇게 애써 노력한 결과 신임의료일군들은 짧은 기간에 유능한 구강의사들로 자라났으며 오늘은 병원의 임플란트과와 보철과, 기공과의 실력있는 과장들로 자라날수 있었다.

지난해말이였다.

오래동안 앓던 병이 다시금 도져 생활상불편을 느끼던 지룡환동무는 문득 자기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그는 생각이 깊었다. 아직은 마무리를 짓지 못한 일이 많았기때문이였다.

그때부터 그는 하루하루를 더욱 불같이 보냈다. 수십년동안 보철부문에서 일하면서 쌓은 경험을 체계화하여 밤이 새도록 저술하는 등 과의료집단의 림상실천에 도움이 되는 여러가지 사업들을 결속하느라 모진 진통을 참으며 힘겨운 전투를 벌리였다.

그리고 운신하기 힘들어하는 한 영예군인의 보철을 위해 소문없이 밤길을 걷기도 하였다.

그 나날 그는 언제 한번 동지들앞에서 자기의 아픔을 내색한적이 없었다.

어느날 이른새벽 지룡환동무의 안해는 출근준비를 서두르는 남편의 팔을 부여잡으며 안타까운 어조로 말하였다.

《어쩌자고 그래요. 그러다 영영 쓰러지겠어요.》

《괜찮소. 오늘까지면 계획했던 일을 끝내게 되오. 래일은 내 꼭 쉬지.》

그리고나서 그는 출근길에 나섰다. 하지만 지룡환동무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오랜 나날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자기를 바쳐온 정든 일터에서 그는 순직하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가슴에 소중히 안고 지난 수십년세월 하루와 같이 한 초소에서 값있게 살아온 지룡환동무의 삶은 생이 무엇으로 하여 아름다운가를 인생의 교과서가 되여 가르쳐주고있다.

그와 같이 일해온 의료일군들은 말하고있다.

그의 삶은 결코 평범한것이 아니였다고.

본사기자 방 경 찬

특색있게 건설된 남새온실
동흥산은하피복공장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온실을 많이 건설하여 겨울과 이른 봄철에는 거기에서 남새를 재배하도록 하는것도 좋습니다.》

함흥시의 동흥산기슭에 자리잡고있는 동흥산은하피복공장에 가면 이채로운 풍경이 사람들의 눈길을 끈다. 3층짜리 생산건물우에 건설한 온실이다. 올려다보면 마치도 유리지붕을 씌운 건물처럼 보인다.

몇해전 어느날 지배인 문영선동무는 평양시에 갔던 기회에 어느 한 단위에서 건물우에 건설한 남새온실을 돌아보게 되였다. 흥분된 심정을 안고 남새온실을 돌아본 지배인은 구체적인 자료들을 쥐고 돌아왔다.

당조직에서는 생산건물우에 남새온실을 짓자는 지배인의 의견을 적극 지지해주었다.

공장의 일군들은 함경남도도시설계연구소의 설계원들과 지혜를 합쳐 설계를 완성하였으며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철강재를 마련하고 세멘트와 혼석, 유리와 마감자재보장사업을 따라세우면서 대중을 발동하여 남새온실건설을 힘있게 내밀었다. 힘은 들었으나 온실을 건설해놓으니 좋은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건물우에 지붕식으로 유리를 씌운 남새온실을 건설하니 수백㎡의 새땅을 거저 얻은 셈이 되였고 온실아래 맨 웃층 작업장의 온도보장에도 좋았다.

공장에서는 특색있게 건설한 남새온실에서 부루와 배추, 오이와 도마도를 비롯한 여러가지 남새를 생산하여 종업원들의 식생활을 윤택하게 하고있다.

당정책결사관철로 심장을 불태우는 일군들에게는 불가능이란 있을수 없다.

땅우에서가 아니라 건물우에 남새온실을 짓고 남새농사를 하여 덕을 보고있는 공장의 현실이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박 동 석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담보하는 무적필승의 강군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83돐에 즈음하여 몽골에서는 경축모임이, 나이제리아에서는 영화감상회가 4월 24일과 25일에 진행되였다. 영화감상회에서는 우리 나라 영화 《조선의 총대》가 상영되였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몽골조선친선협회 지도리사회 성원은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조선인민군창건 83돐을 축하한다.

현대조선의 력사는 혁명무력의 탄생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김일성주석께서는 혁명적무장력을 창건하시고 일제와 미제를 타승하시였으며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선군정치로 조선의 자주권과 존엄을 빛나게 수호하시였다.

강력한 군력에 의거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압살책동을 짓부시며 자주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는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다.

몽골 어버르한가이도 김일성유치원 원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일성주석의 존함을 모신 유치원에서 사업하는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주석께서는 몽골과 조선사이 친선협조관계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우리 유치원에서 배우며 자란 많은 사람들이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발전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김일성주석의 존함을 모신 우리 유치원은 몽골조선친선의 상징으로 빛을 뿌릴것이다.

나이제리아 나이저-델타발전리사회 성원들은 영화를 감상하고 김정은각하의 령도따라 사회주의조선은 승승장구하고있다, 령도자와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이 있고 막강한 군력과 자립적민족경제를 갖춘 조선은 사회주의강성국가로 솟구쳐오르고있다고 격찬하였다.

* *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83돐에 즈음하여 주체사상연구 기네전국위원회에서 4월 22일 불레찐을 발행하였다.

불레찐은 《불패의 조선인민군》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4월 25일은 조선인민군창건 83돐이 되는 날이다.

조선인민군은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의 승리를 믿음직하게 담보하는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위용떨치고있다.

조선인민군의 첫째가는 힘은 그 어느 나라 군대도 가질수도 흉내낼수도 없는 정치사상적위력이다. 자기의 최고사령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충정은 조선인민군의 영광스러운 전통이다. 모든 군인들이 최고사령관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그이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있다. 최고사령관의 명령일하에 전체 장병들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고있다.

조선인민군의 위력은 군민대단결로 하여 더욱 불패의것으로 되고있다. 인민은 군인들을 자기의 친자식처럼 여기고 적극 원호하며 군대는 인민을 부모형제로서만이 아니라 전우로, 혁명동지로 여기며 그들의 생명재산을 위해 목숨도 서슴없이 바치고있다.

조선인민군의 힘은 또한 무진막강한 군사기술적위력에 있다. 조선인민군은 공격과 방어에 다 준비된 무적의 강군으로 자라났다.

조선인민군 장병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각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조국을 통일하고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길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 *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83돐에 즈음하여 짐바브웨와 나미비아신문이 기념글을 게재하였다.

짐바브웨신문 《헤랄드》 4월 24일부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을 모시고 《평화를 위하여 쌓으신 업적》이라는 제목의 글을 편집하였다. 신문은 조선인민군은 장장 80여성상 선군혁명과 더불어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자랑찬 로정을 걸어왔다고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혁명무력이 두차례의 혁명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고 전후에도 거듭되는 미국의 도발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셔버린데 대하여 상세히 서술하였다.

신문은 지난 세기 말엽 동유럽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붕괴를 기화로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정치군사적공세가 조선에 집중되던 최악의 역경속에서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는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드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강권, 전횡을 짓부시고 세계평화와 안전을 수호하신분이 바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일국방위원장이시였다. 그이께서는 선군혁명령도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믿음직한 담보를 마련해주시였다.

그이의 령도밑에 조선인민군은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되였으며 동방에 평화의 전초선이 믿음직하게 꾸려지게 되였다.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는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미국의 군사적도발과 침략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셔버리시였으며 조미핵대결전을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또한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주력으로 하여 조국보위와 사회주의위업전반을 힘있게 밀고나가는 선군정치방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하시였다.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세계평화위업에 쌓아올리신 거대한 업적은 인류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되여있을것이며 조선인민군의 승리의 력사는 끝없이 이어질것이다.

나미비아신문 《뉴 이어러》 4월 23일부는 《선군혁명과 더불어 80여성상》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실었다.

조선인민군은 혁명의 기둥, 주력군으로 위용떨치며 나라의 정치사상진지를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조선사회의 정치사상진지는 하나의 사상에 기초한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 군민일치에 의하여 백방으로 다져졌다.

조선의 전통적인 군민일치는 단지 서로 도와주고 위해주기만 하는것이 아니라 사상정신적풍모와 투쟁기풍의 일치를 이루며 세대를 이어 새로운 높이에로 승화되고있다.

이러한 반석같은 정치사상진지가 있기에 사회주의조선은 력사의 온갖 시련속에서도 끄떡없이 승승장구하고있는것이다.

조선인민군은 사회주의건설에서도 주력군으로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였다.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인민군군인들은 강성국가건설의 전구들마다에서 돌파구를 열어제끼며 부강조국의 만년토대를 다져왔다.

인민군군인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와 같은 대중문화정서생활거점들이 세계적인 수준에서 일떠서고 옥류아동병원과 같은 의료봉사기지들이 훌륭히 건설되였다.

은하과학자거리와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을 비롯하여 나라의 방방곡곡에 일떠선 인민들의 행복한 보금자리에도 군인들의 로력적위훈과 땀방울이 스며있다.

인민군군인들은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마식령속도》를 창조함으로써 마식령스키장을 짧은 기간에 훌륭히 완공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일본은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과거범죄력사를 대하는 일본의 태도가 주변나라들의 불안과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올해는 일제가 패망한지 70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날 일제의 침략과 략탈로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당한 아시아인민들은 일본이 비록 늦은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잘못된 과거를 성근하게 인정하고 사죄하며 옳바른 길에 들어서기를 기대하고있다. 일본이 또다시 전대미문의 살륙전쟁, 피의 력사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서이다.

그런데 일본의 태도를 보면 과연 어떠한가. 그야말로 뻔뻔스럽기 짝이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려는 생각은 꼬물만큼도 없다. 오히려 범죄력사를 외곡하며 유치하고 치졸한 말장난질로 국제사회를 우롱하고있다.

일본당국자를 위시로 한 집권세력이 그 앞장에 서있다. 얼마전에도 일본당국자는 미국을 행각하면서 한 강연이라는데서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에 대하여 《인신매매피해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그런가하면 패망 70년이 되는것을 계기로 발표하게 되는 담화에 침략과 사죄라는 표현을 넣지 않겠다는것을 명백히 하였다.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하겠는가.

그는 자기의 발언으로 검은 속심을 그대로 드러내놓았다. 그는 의도적으로 일본의 과거범죄력사를 부정하며 외곡하고있다. 이렇게 단마디로 찍어말해도 그는 할 말이 없게 되여있다.

일본당국자의 언행은 결코 실수나 무식으로부터 나온것이 아니다. 성노예문제만 놓고보아도 그렇다. 명백히 일본군성노예들은 《인신매매》에 의한 피해자가 아니라 일제가 관권과 군권을 동원하여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감행한 성노예범죄의 피해자들이다. 이것은 감출수도 가리울수도 없는 엄연한 력사적사실이며 특대형반인륜적범죄이다.

일본당국자도 이것을 모를수가 없다. 그는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하나 교묘한 말장난질로 과거력사를 부정하고 무마시켜 책임에서 벗어나려 하고있다. 일본당국자가 앞으로 발표하게 되는 담화에서 침략과 사죄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다고 한것도 이로부터 출발한것이라고 볼수 있다.

문제는 일본에서 력사부정, 외곡행위가 전반적인 사회적흐름으로 되고있는것이다. 정계, 사회계가 한덩어리가 되여 력사외곡에 미쳐날뛰고있다.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까지 외곡된 력사관을 심어주고있다.

최근 일본문부과학성이 다음해 봄부터 사용하는 중학교교과서들에 대한 검정결과를 발표한것이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이번에 검정통과된 교과서들의 내용을 보면 과거침략력사가 심히 외곡되였으며 전후처리에 대해서는 《국가간 배상은 이미 해결되였다.》로 되여있다. 지어는 남의 나라 땅까지 일본땅으로 되여있으며 현재 그것이 점령당한것처럼 묘사되였다.

일본의 력사부정, 외곡책동은 단순한 학술상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과거의 죄를 인정하는가 안하는가, 과거범죄력사를 반성하고 청산할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예민한 정치적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과거문제를 놓고 요리조리 발뺌을 하며 지독하게도 자기 죄를 인정하기 싫어하고있다.

일본이 노리는 목적은 딴데 있지 않다. 과거범죄의 력사를 되풀이하자는것이다.

일본의 력사부정, 외곡책동은 오래전부터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진행되여왔다. 일본인들을 민족배타주의와 군국주의사상으로 교육된 무지하고 기형적인 인간으로 만들자는것이다. 이로 하여 오늘 적지 않은 일본인들이 피비린내나는 과거침략사를 《정의의 위업》으로 잘못 인식하고있으며 아시아침략과 태평양전쟁에 미쳐날뛴 특급전범자들을 《영웅》으로 찬미하며 해외파병과 《평화헌법》개악을 공개적으로 지지해나서고있다.

일본은 군사대국화와 재침의 길로 거침없이 내달리고있다. 이미 세계적인 군사대국으로 된 일본은 새 세대들을 군국주의사상으로 무장시켜 재침의 길로 내몰려 하고있다.

과거에 우리 나라를 비롯한 아시아나라들을 피로 물들였던 일본은 또다시 위험한 전쟁세력으로 되였다. 지금 일본은 제손으로 제 무덤을 파며 스스로 자멸의 길로 나가고있다.

일본의 과거력사는 군국주의와 해외침략이 가져다주는것이란 재난과 멸망뿐이라는것을 명백히 가르쳐주고있다.

일본은 이것을 명심하고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리학남

미일군사동맹강화책동 규탄

우리 나라 외무성 대변인담화를 여러 나라에서 보도

미국이 일본과의 군사동맹강화에 본격적으로 매여달리고있는것과 관련하여 발표한 우리 나라 외무성 대변인담화를 1일부터 5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따쓰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외무성 대변인은 미국과 일본이 《미일방위협력지침》을 새롭게 개정, 발표함으로써 미국은 지금까지 일본주변에 국한시켰던 일본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전세계에로 확대시켰으며 저들이 세계의 임의의 지역에서 진행하는 임의의 군사작전과정에 일본의 군사적지원을 받을수 있게 해놓았다고 폭로하였다.

그는 문제시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미국이 조선의 《도발적행동을 억제》하기 위하여 이번에 《미일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였다는 식으로 조선을 걸고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대변인은 미일군사동맹의 강화는 불피코 동북아시아의 정세안정을 파괴하고 지역에서 대립과 마찰을 증대시키며 분쟁과 군비경쟁을 불러오는 결과만을 가져오게 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조선은 주변관계구도가 어떻게 바뀌든 조선을 압살하려는 미국의 적대시정책이 계속되는 한 선군정치와 병진로선을 변함없이 틀어쥐고 핵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국방력을 억척같이 다져나갈것이라고 대변인은 강조하였다.

로씨야의 신문 《모스꼽스끼 꼼쏘몰레쯔》와 스뿌뜨니크방송, 이란신문 《카이한 인터내슈널》, 일본의 교도통신과 지지통신, 도이췰란드반제연단 인터네트홈페지도 《조선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을 단죄》 등의 제목으로 우리 나라 외무성 대변인담화를 보도하였다.

당국의 헌법개정시도 반대

일본인들속에서 현 당국이 강행추진하려는 헌법개정을 반대하는 기운이 높아가고있다.

이 나라의 《마이니찌신붕》이 전국적인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한데 의하면 응답자의 55%가 당국이 헌법을 뜯어고치려는데 대해 반대립장을 표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일본에서 미군기지 건설을 반대하여 시위

제2의 랭전을 몰아오는 위험천만한 행위

미국이 일본과의 군사동맹강화에 본격적으로 달라붙고있다.

얼마전 미국은 일본의 외교 및 군사당국자들을 뉴욕에 끌어들여 미일안보협의위원회라는것을 열고 《미일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여 발표하였다.

그 내용의 골자를 보면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중시전략에 맞게 이전에 일본주변과 유사시에만 국한시켰던 《미일안보협력》범위를 전세계와 평상시에로 확대하며 일본 《자위대》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인다는것이다.

개정된 《미일방위협력지침》에 따라 일본 《자위대》는 앞으로 활동범위를 전세계에로 확대하고 미국이 임의의 지역에서 진행하는 군사작전과정에 군사적지원을 할수 있게 되였다.

그저 스쳐지나보낼수 없는 위험천만한 사태발전이다.

지금 미국은 《미일방위협력지침》개정이 그 누구의 《도발적인 행동과 위협》을 막고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보장》을 위한것이라고 떠들고있다.

이것은 기만이다. 미국은 불순한 목적을 노리고있다.

그것은 일본 《자위대》를 유라시아대륙에서 자기의 경쟁적수들인 중국과 로씨야를 군사적으로 포위억제하고 세계제패야망실현을 위한 돌격대로 써먹자는것이다.

세계제패는 미국의 변함없는 야망이다. 그 실현을 위해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중시전략이라는것도 내놓았다.

여기에서 기본은 결정적인 힘의 우세에 의거하여 이 지역을 지배한다는것이다. 그런데 나날이 쇠약해지고있는 미국에 있어서 그것은 매우 힘에 부치는것이다.

동북아시아지역에서는 중국과 로씨야가 커다란 군사, 경제적잠재력을 가지고있으며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있다.

반면에 미국의 힘은 약화되고있다. 현재상태에서 미국이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한다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국은 이러한 약점을 추종세력들과의 군사동맹강화로 메꾸려 하고있다. 집단적인 군사적행동으로 적수들을 제압하고 손쉽게 목적을 달성하자는것이다.

여기에서도 미국은 특히 일본과의 군사동맹강화를 중시하고있다. 저들대로의 타산이 있기때문이다.

일본은 방대한 군사적잠재력을 가지고있다.

태평양지역에서 일본은 미국 다음가는 해상무력을 가지고있으며 항공 《자위대》는 세계적인 군사강국들의 수준에 있다. 우주군사화와 미싸일방위체계구축을 통하여 전략적타격능력을 높일수 있는 토대도 닦아놓았다.

일본의 군사력은 서방렬강들과 당당히 어깨를 겨루는 정도이다.

일본은 과거에 아시아태평양지역 나라들에 대한 침략전쟁을 감행한 전적도 가지고있다.

오늘에 와서 일본은 그러한 전철을 다시 밟으려 하고있다. 패망의 한을 삭이지 못하고 《복수》를 부르짖으며 군사대국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이런저런 교묘한 수법으로 재침야망실현에 장애로 되는 법적, 제도적장치들을 하나하나 제거해버리고있다.

이미 《방위계획대강》에서 《안전보장》의 중점을 국내안전으로부터 《국제안전》으로 확대하고 해외군사활동을 《자위대》의 기본임무의 하나로 내세웠다. 이제는 현행헌법까지 뜯어고쳐 해외침략을 완전히 합법화하려 하고있다. 공개적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 나라들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자는것이다.

미국은 이 모든것을 저들의 아시아태평양중시전략실현에 효과있게 써먹으려 하고있다.

바로 이로부터 미국은 군사동맹강화로 일본을 더욱 틀어쥐는 동시에 일본의 군국주의부활을 부추기고있다. 군국주의에 열이 오른 일본반동들의 심리를 리용하여 그들을 돌격대로 내세워 중국과 로씨야를 제압하자는것이다.

미국이 이번에 세계의 임의의 지역에서 진행하는 저들의 군사작전에 일본 《자위대》무력을 끌어들일수 있도록 《미일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한것은 바로 이때문이다.

《미일방위협력지침》개정을 통하여 미국이 노리는 검은 속심은 낱낱이 드러났다.

세계제패를 위한 미국과 일본의 위험한 군사적결탁은 국제사회의 커다란 불안과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동북아시아에는 새로운 랭전의 검은 구름이 밀려오고있다.

가뜩이나 팽팽한 지역정세는 극히 엄중한 지경으로 치닫고있다.

벌써 나라들사이의 분쟁과 군비경쟁이 더욱 격화될 조짐이 보이고있다.

앞으로 미일군사동맹의 강화로 동북아시아에서 대결구도가 더욱 뚜렷해지고 대립과 마찰이 한층 격화될것이며 일단 유사시 그 불찌가 조선반도에 떨어지게 될것이라는것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조성된 정세는 우리로 하여금 있을수 있는 사태에 대처하여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위해,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해 전쟁억제력을 보다 강화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미국이 새로운 조선전쟁을 도발하여 우리를 삼키고 나아가서 대륙으로 진출하려 하는 조건에서 더욱 그렇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주변관계구도가 어떻게 바뀌든 선군정치와 병진로선을 변함없이 틀어쥐고 핵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국방력을 억척같이 다져나갈것이다.

강철수

동맹국들을 희생시켜 제 리속을 차리는 미국

얼마전 도이췰란드의 한 신문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였다. 도이췰란드련방정보국이 미국가안전보장국을 위해 유럽의 주요동맹국들과 유럽동맹 기관들에 대한 도청을 수년간이나 진행해왔다는것이다.

사건은 2008년부터 시작되였다. 당시 련방수상실 실장을 하던 현 련방내무상이 미국가안전보장국의 요청을 받았는데 그것인즉 《친선》국가들과 기업들에 대한 정보자료들을 통보해달라는것이였다.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도이췰란드련방정보국은 자기들의 콤퓨터봉사기들을 리용하여 도청을 진행하였다. 유럽항공업계를 비롯한 주요회사들과 정치인들이 도청대상에 들어갔다. 도이췰란드의 한 지역에 위치한 련방정보국의 도청기지가 여기서 주요역할을 하였다.

지금껏 도이췰란드정부는 이것을 알면서도 모르는체 하여왔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 모든 사실이 말짱 드러났다. 어쩔수 없게 된 도이췰란드련방수상실은 모든것을 인정하였다.

나타난 사실앞에서 유럽나라들은 말할것도 없고 도이췰란드 국내에서도 항의의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다. 도이췰란드련방의회의 야당세력들은 정부가 자기들을 완전히 속였다고 하면서 맹렬히 비난하였다. 도이췰란드사회민주당은 도청행위의 목적과 해당 명단을 비롯한 구체적인 자료들을 빠른 시일내에 련방의회 조사위원회에 제출할것을 련방수상실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미국이 많은 나라 정부와 관리들에 대한 도청행위를 일삼고 음모와 모략을 꾸며온것은 비단 이번에 새롭게 알려진 사실이 아니다. 세계를 《프리즘》이라는 거대한 감시망에 넣고 전인류를 대상으로 하여 정탐행위를 감행하던 비밀감시작전이 그 실례이다.

미국은 그때 자기의 죄과를 가리우기 위해 그것이 《테로》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처사였다느니 뭐니 하면서 구차스러운 변명을 늘어놓았으며 그것을 폭로한 스노우덴을 정신병자로, 간첩으로 몰아붙이며 여론을 막아보려 하였다.

이것은 먼 옛날의 일도 아니다. 미국은 동맹국이라는 유럽나라들을 리기적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도구로밖에 여기지 않고있다. 우크라이나사건을 계기로 서방이 벌리고있는 대로씨야제재의 막뒤에서 제 리속만을 챙기는 미국의 움직임을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유럽나라들이 미국의 부추김을 받고 대로씨야제재에 뛰여들 때 그로 인한 불찌가 유럽에 떨어지게 된다는 《각오》를 하지 않은것은 아니였다. 큰것을 위해 작은것을 일시적으로 희생시킨다는 타산에서였다. 그러나 피해액은 너무나도 엄청나다.

그 액수는 210억~400억€에 달한다. 미국의 전략에 따라 대로씨야제재에 추종한 덕으로 그들은 많은것을 잃고있다.

다른 나라들보다 도이췰란드나 프랑스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미국은 정반대이다. 유럽나라들을 대로씨야제재에로 내몰고 저들은 뒤돌아앉아서 로씨야와의 무역을 광범하게 진행하여 리득을 보았다.

인디아학자 꾸마르 굽따는 우크라이나사태가 발생한 후 유럽은 미국의 사촉하에 대로씨야제재작전을 편것으로 하여 돌이킬수 없는 피해를 보았다고 하면서 《미국이 로씨야보다도 유럽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그런 행위를 유럽에 강요하였으며 우둔한 유럽은 현명하게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미국의 지시에 복종한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로씨야와의 싸움에 희생물로 던져진 유럽동맹의 숨가쁜 꼴을 바라보며 미국은 음흉한 미소를 짓고있다.

너절한 도청수법을 동원하여 동맹국들의 염통까지도 뽑아내여 저들의 리속만을 차리는 미국을 유럽나라들은 언제까지 《친근한 벗》으로 믿고있겠는가.

김국철

조선국가우주개발국 대변인담화를 여러 나라에서 보도

조선국가우주개발국 대변인담화 《불순적대세력들의 온갖 준동을 짓부시며 선군조선의 평화로운 우주개발은 더욱더 기운차게 추진될것이다》를 8일과 9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따쓰통신은 조선국가우주개발국 대변인이 평화적인 우주개발은 주권국가로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합법적인 권리이라고 강조하고 조선의 위성관제종합지휘소건설이 《박두한 탄도미싸일발사준비의 일환》이며 《국제사회와의 대립을 격화시키게 된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주장을 도발적인 망발이라고 규탄하였다고 전하였다.

인디아의 지 뉴스TV방송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조선국가우주개발국 대변인은 그가 누구든 더이상 조선의 정정당당한 우주개발에 대하여 함부로 걸고들고 그릇되게 해석하며 제멋대로 떠들어대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대변인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불필요하게 계속 청을 돋군다면 한갖 개짖는 소리로 간주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그 누가 함부로 주절대고 온갖 불순적대세력들이 도전해나선다고 해도 주체조선의 위성은 우리 혁명의 최고수뇌부가 요구하고 결심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창창한 우주대공을 향해 련속 날아오를것이다.》고 강조하였다.

이 나라의 NDTV방송과 인디아-아시아통신, 일본의 교도통신과 지지통신, 우루과이신문 《라 후벤뚜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련대성 브라질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도 조선국가우주개발국 대변인담화를 보도하였다.

서방의 력사외곡시도 배격

로씨야외무상 쎄르게이 라브로브가 5일 한 의식에서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자들과 패배자들을 동일시하려는 력사외곡시도를 단호히 배격하였다. 그는 위대한 조국전쟁에서의 승리는 모든 사람들의 심장속에 영원할것이며 대를 이어 전해져야 할 나라의 정신도덕적전취물이라고 말하였다. 로씨야는 앞으로도 전쟁승리의 결과를 외곡하고 승리자들과 전세계를 예속시키려던 자들을 동일시하려는 온갖 시도를 반대하여 견결히 싸울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한편 로씨야대통령행정부 책임자가 최근 기자회견에서 서방의 력사외곡시도를 배격하는 정부의 립장을 표명하였다. 그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정치가들이 고의적으로 력사를 수정외곡하고 공산주의와 파시즘 등을 동일시하고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이것은 완전히 날조이며 로씨야를 고립시키기 위한 서방나라들의 저렬한 수법이라고 단죄하였다.

로씨야인민은 이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여러 나라에서 자연피해

- 탄자니아의 수도에서 최근 무더기비에 의한 큰물로 피해를 입고있다.

큰물로 6일현재 3명이 사망하고 수천명이 집을 잃고 한지에 나앉았으며 교통이 마비되였다 한다. 현지에서 긴급구제사업이 진행되고있다.

- 인도네시아의 서부쟈바주에서 5일 산사태가 일어나 피해를 입었다.

며칠째 계속된 무더기비에 의한 사태로 이날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14명이 행방불명되였다. 또한 8채의 살림집이 무너지는 등 많은 물질적손실이 초래되였다. 피해를 가시기 위한 긴급조치가 취해지고있다.

【조선중앙통신】

네팔에서 지진피해

미국의 무장장비증강책동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군사적간섭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무장장비증강책동에 발광적으로 매여달리고있다. 최근 이 나라의 UPI통신이 전한데 의하면 군수독점체인 레이디온회사가 《SM-6》요격미싸일의 계렬생산에 착수하였다. 회사측은 부분생산으로부터 계렬생산에로의 전환은 미싸일생산량이 늘어나게 된다는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도이췰란드의 듀쎌도르프 2017년 세계탁구(개별종목)선수권대회 주최지로 선정

도이췰란드의 듀쎌도르프가 4월 28일에 진행된 국제탁구련맹 년례총회에서 2017년 세계탁구(개별종목)선수권대회 주최지로 선정되였다. 대회는 2017년 5월 29일부터 6월 5일까지 진행되게 된다.

국제탁구련맹 위원장이 이에 대해 밝혔다.

2015년 세계권투선수권대회 마크 공개

국제아마츄어권투협회가 2015년 세계권투선수권대회 마크를 공개하였다. 마크는 까타르를 상징하는 일련의 요소들을 담고있다.

이번 대회는 10월 5일부터 18일까지 까타르의 도하에서 진행되며 우수한 성적을 쟁취한 선수들은 2016년 올림픽경기대회 참가자격을 획득하게 된다고 한다.

로씨야에 대한 제재철회 주장

체스꼬대통령 밀로슈 제만이 3일 따쓰통신과의 회견에서 로씨야를 반대하는 서방의 제재가 철회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서방나라들의 제재가 역효과를 가져오고있으며 정세를 완화시키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긴장시키고있다고 밝혔다. 여러 나라들도 대로씨야제재를 어리석은짓으로 평가하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로씨야에 대한 압력은 무익한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스라엘수상을 비난

전 미국대통령 지미 카터가 최근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수상 네타냐후를 비난하였다.

그는 네타냐후가 권력의 자리에 있는 한 중동지역의 평화도, 팔레스티나독립국가창건도 실현되지 못할것이라고 우려하였다.

【조선중앙통신】

ㄱ-510746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